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천연물이 부공해 오염되지 않는 피부 !
자외선에 대한 피부 자극에 민감한 현대인을 위한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소개합니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영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3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16일(음 2월8일)은 불교의 4대 명절의 하나인 부처님 출가절이다. 싯달타 태자가 29세때 늙고 병들고 죽어야하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깊이 번민하던 끝에 마침내 출가한 날이다. 왕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찾아 구도자의 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출가 사문을 비구(니) 또는 운수납자라고 한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밖으로 밥을 빌어 육신을 유지하고 안으로는 진리를 빌어 중생을 이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가라.' 출가에 대한 경전과 어록의 말씀을 듣는다. 〈편집자 주〉

출가해 불도를 배우면 도과를 얻게 되는바, 이것은 계(戒) 정(定) 혜(慧)의 힘이다. 〈선견율〉

부와 양친과 친척과 육신의 쾌락보다 큰 쾌락은 진리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진리를 따라야 한다. 〈파리문잡아함경〉

부모형제와 이별하고 출가한 사문은 욕망을 쉬고 애욕을 끊어, 자기 마음의 근원과 법의 깊은 이치를 알아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안으로 얻을 것이 없고 밖으로는 구할 것이 없어, 마음은 진리에도 머이지 않고 업도 짓지 않는다. 〈사십이장경〉

욕망 쉬고 애욕 끊어…

집에서 사는 생활은 비좁고 번거로우며 먼지가 쌓인다. 그러나 출가는 넓직한 들판이며 번거로움이 없다고 생각해 출가한 것이다. 〈숫타니파타〉

사람들로부터 떠나 고독한 생활을 닦고 익히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도 이탈하라. 만약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면, 자기의 감관을 지키고 바른 결심을 가지면서 승가 속에 살아라. 〈장노게〉

너희들은 왕이 두려워서 출가하여 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또한 도적이 두려워서도 아니요, 부채를 갚지 못해서도 아니며, 가난을 피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다만 생노병사의 고통과 번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중이함경〉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권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며,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생사(生死)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끝없는 중생(이웃)을 건지려고 해서이다. 〈휴정 '선가귀감'〉

소나무 밑에 돌을 베고 누워 잠이 들었다. 새소리에 놀라 깨니 해가 가을다. 책력도 없는 산중(山中) 해가 바뀌어도 간지(干支)를 모른다. 〈태상은자 답인(答人)〉

현존 最古 고려옷 발견

지공화상 계첩·통일신라 금동불상 2점도

해인사 성보 조사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의복으로는 가장 오래된 고려시대 말(1326년경) 의복 11점과 지공(指空)스님의 계첩(戒牒)(1326년 제작)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의복과 계첩은 조계종의 의뢰를 받아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스님)이 지난해부터 시작한 성보실태조사중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상 복장유물에서 출토된 것으로 국보급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적광전 불단 진단구(鎭壇具)에서 보석광배로 장식된 금동여래입상도 출토됐다. 〈관련기사 · 화보 7면〉

반수포(半袖袍) 등 포류(겉옷) 5점과 적삼류 3점, 삼베로 만든 소매 2점, 남색명주천 1장 등 이들 의복은 어른과 어린이의 평상복으로 추정된다. 이중 '송부개'라는 명문이 찍힌 모시로 만든 15세 남자의 평상복은 그동안 학계에 이름만 전해오던 요선철릭(腰線天翼 · 허리선에 주름이 잡힌 옷)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위원인 유송옥 교수(성균관대 의상학)는 "이들 의복은 고려복식사 연구에 획기적이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복과 함께 비로자나불에서 발견된 지공스님의 사경체 계첩(戒牒)은 모두 12장으로 2장의 변상도가 매우 섬세하게 나타나 있어 이 역시 국보급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허흥식교수(정신문화연구원)는 "이번 계첩은 지공스님의 다섯번째 계첩으로 당시의 불교교리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인사에서 발굴된 두 불상 중 하나는 당초연화문의 광배 3군데에 자수정이 장식돼 있어, 국내는 물론 동양에서도 처음 출토된 세계적인 문화재다.

이번 발견은 성보문화재연구원이 최근 1년간 해인사 본 · 말사 1백41개와 강원 월정사 본 · 말사 61개 사찰의 문화재 및 각종 불교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으며, 해인사에서 고려시대 소형 금동범종(金銅梵鐘)과 청보봉황촛대 등 2천3백여점, 월정사에서 1천50여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해인사에서 영산회상도, 104위 신장탱화, 세조대왕 영정의 재평가가 진행중이며,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월정사 9층탑에서 고려시대 다라니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굴유물은 가치평가 작업을 거쳐 미공개유물과 함께 목록 및 도록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성보실태조사는 오는 2005년까지 본 각 사를 중심으로 말사까지 실시된다. (한명우 기자)



"고려 옷 671년만에 세상으로"

해인사에서 발견된 요선철릭(腰線天翼)등 의복 11점은 고려시대 옷으로는 처음 완전한 형태로 발견돼 국보급으로 평가되고 있다. 15세 남자의 평상복 요선철릭은 매우 새나 선의 미감이 현대패션을 방불케 한다.



내일의 성보 '佛龕'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에서 오해균씨의 '불감(佛龕)'이 대상을 받았다. 단단한 대추나무에 삼신불회상도를 역동적이고 섬세하게 조각, 정교함이 극히 뛰어난 목공예품이다. 〈관련기사 13면〉

문체장관 송태호씨

지난 5일 내각개편에 따라 김영수 문체부장관 후임에 송태호씨(사진)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까지 새로 임명된 11명 각료 가운데 불자는 강경식 부총리(수덕사 신도) 1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독교 신자는 불교학자인 고익진 옹(前 전남대 총장)의 아들인 고건 국무총리를 포함, 송태호 문체, 최상화 법무, 정호근 민주평통사무총장 등 모두 4명으로 나타났다.



총무처장관 유임 전불련 '유감 표명'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지난 5일 이번 개각과 관련 "김한규 총무처 장관이 경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종교편향정책의 재발방지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논평했다.

전불련은 또 "김대통령의 개각은 한보비리와 관련한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고 경제를 되살려 보겠다는 경질성 개각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울 초파일 봉축행사 확정 15면
거조암 5백나한 '1년 휴가' 14면
"금강산은 부처님 땅이다" 12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는 불교문화재는 한국의 美를 상징하는 민족문화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이 땅의 천년불심이 스며 있습니다. 불교문화재는 그래서 성보입니다.

불교문화재를 바르게 이해하면 무언(無言)의 설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조상의 숨결과 예지 그리고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적 미감과 정서의 원형질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3월 테마여행 — 내소사

한국의 色·線·面(목조각의 조형미와 단청)

내소사는 변산반도 남단에 자리잡은 고찰로 연꽃 국화 등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꽃무늬문살로 유명한 대웅보전(보물 제291호)과 고려시대 동종(보물 제277호)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못 하나 쓰지않고 나무들을 서로 교합하여 건축한 대웅전은 조선후기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로 천장의 꽃무늬와 뒤벽의 백의관음보살도가 유난히 눈길을 끕니다. 또한 일주문에서 천왕문으로 이어지는 푹푹 뽑은 전나무길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시원해지는 나무터널로 속진을 씻어줍니다.

귀경하는 길에는 경승지로 유명한 채석강도 들릴 예정입니다.

봄기운 가득한 3월 호남명찰로의 테마여행에 독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참가 안내
◇출발
3월 23일(일) 오전 7시 - 조계사 앞
◇안내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
◇회비
3만원(사찰에서 점심공양)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한주여행사 (02)738-8100
조흥은행 계좌 322-04-221460(선정호)

4월 27일 석굴암 남산-한국인의 얼굴
5월 25일 대흥사-해 남 그리고 한국인의 풍류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주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본사 사령
위영란 취재1부장 겸 조사자료부장
이경숙 취재2부장 직대
박상균 편집부장 직대
윤제학 출판사업부장 직대
박장훈 영업부장 직대
조원희 전략정보실장
조동규 출판사업차장
선정호 기획관리차장
최상철 영업과장 대우
이승철 총무부 대리
김학표 출판사업부 대리
양은숙 전략정보실 수습사원
(命 1997년 3월 1일)

부 처 님 오 신 날
봉축 기념 성품, 특별 보급 안내



● 코끼리 꽃꽂이반 350×230㎜
■ 특가 : ₩120,000
● 탄생불(390㎜)
● 장엄코끼리 받침 470×280㎜
■ 특가 : ₩330,000(받침포함)



● 대장경(국보 제32호) 금동 반야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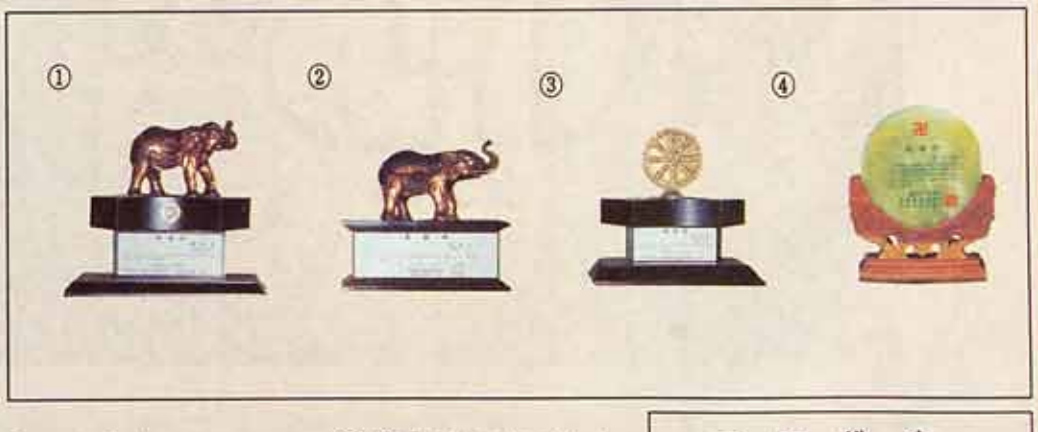
● 비경 천불 금강경
● 경판규격 : 505×255×8㎜
● 재질 : 주석 99.9% (24k 순금세금)
■ 특가 : ₩480,000



금강경 10폭 병풍
● 후면 : 석가 세존 일대기(팔상록)
■ 특가 : ₩490,000



부모은중경 10폭 병풍
● 후면 : 반야심경(추사영인본))
■ 특가 : ₩480,000



① 코끼리(小) 규격 : 215×185(㎜)
② 코끼리(大) 규격 : 280×240(㎜)
③ 법륜 규격 : 215×200(㎜)
④ 일원(옥) 규격 : 250×220(㎜)

三 田 佛 事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당B/D)
전화 (02)732-6095~6
FAX (02)735-5293

사 설

절마다 잠자는 성보찾자

조계종 총무원이 성보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해 온 해인사·월정사 성보문화재 실태조사가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꼬박 1년이나 걸려 마쳤다. 전례가 없었던 이런 조사를 의뢰한 용단도 용단이려니와 그로 인해 햇빛을 보게된 많은 성보들이 쏟아져 나왔다니 기쁘고 기쁜 일이다. 발굴된 3350점의 성보문화재중 국내 최고의 고려청상복이 있는가 하면 보석장식이 있는 광배의 희귀한 불상도 있다고 한다. 국보나 보물급의 값진 성보문화재들이 많이 섞여 있다니 전국적으로 조사를 마치면 얼마나 더 많은 성보를 찾을 수 있을까 하고 흥분마저 인다.

그동안 각 사찰에 묻혀 그 진가를 알지 못한채 더러는 도굴꾼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더러는 허술한 보관으로 본의 아니게 유실되거나 손상을 입혔던 성보도 없지 않았을테니 돌이켜보면 이번과 같은 조사사업이 만시지탄의 감이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월정사와 해인사의 본말사를 시작으로 성보문화재의 체계적인 정리를 서두른 것은 거듭 경하해도 넘치지 않는 일이다. 차제에 성보의 체계적인 정리와 보관에 대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확대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마무리 하기를 제안한다. 조계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찰에 보관되어 있는 성보, 특히 문화재급에 해당하는 모든 성보를 장단기 계획을 세워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 성보는 일차적으로 불교적 의미를 지닌 것이지만 더 넓게는 우리 민족 모두의 성보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 말은 특정 종교의 소유물이라기 보단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민족의 유산임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조사 연구를 서둘러야 한다.

두번째로는 각 사찰의 본말사들이 조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찰에 있으니 우리가 잘 보관하면 된다는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잘 보관하고자 하는 정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보관 관리하는 전문지식이 없다면 이는 오히려 성보를 망치는 일도 된다. 적극적인 조사 연구가 선행된다면 앞으로 성보문화재의 소재나 행방이 보다 투명하게 됨으로써 도굴이나 훼손 그리고 유실과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투명성은 결국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종교적 성보로서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속에 친근하게 함께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성보의 보관과 전시 또는 종교적 활용을 위해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성은 사찰의 개개 단위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을테니 종단 차원에서 지도적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전문적인 보관과 전시 또는 성보문화재의 복원과 유지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단지 그 성보를 보관하고 있던 사찰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과 국가적인 예산을 규모있게 투자할 것을 권한다.

네번째로는 성보문화재들이 보다 국민에게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인이나 연구자들에게만 정보가 독점되어져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에게 친근히 다가올 수 있는 성보라야 살아있는 성보이지 그렇지 않고 폐쇄된 상태의 성보라면 성보로서의 가치를 잃은 박제에 불과할 것이다.

끝으로는 종교적인 불사가 여러가지이고 또 화급한 것도 많겠지만 이번과 같은 성보문화재의 체계적인 조사를 불사의 우선순위에 먼저 두고 불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불사로 이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성보문화재 정리와 발굴을 위한 거국적인 운동으로 번져가도록 초월적인 자세를 갖도록 권해본다.

열린마당

'97 대선과 불교계

불교와 대선. 대통령선거가 있는 올해 불교계에 주어진 화두이다. 조계종중앙종회(의장 설정)와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은 지난 6~7일과 4일 각각 종회의원 연수와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종회의원연수에서 발표된 윤세원교수(인천전문대)의 '종교와 정치', 전불련 정책토론회 발제문인 손혁재씨(열린사회연구소장)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과 토론내용을 통해 불교계가 어떻게 대선을 준비하고 맞을 것인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종교와 정치 '人間苦' 해결 목적 같아

윤세원 〈인천전문대교수·정치학〉

인간문제, 즉 고(苦)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가장 프괄적인 것은 정치라 할 수 있다. 종교와 정치는 근원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위해서'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불타의 가르침은 근본고의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사회고의 제거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 사회고의 제거를 위한 불타의 가르침은 바로 정치에 대한, 혹은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불타는 오계의 바탕 위에 공공정신, 지혜, 도덕성, 규율, 신앙심 등을 강조했다(대반열반경). 또한 정치는 강제력의 행사가 수반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통치자에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통치자의 성격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륜성왕사자후경〉에는 통치권력은 통치 자질(資質)과 통치 내용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이며, 통치자의 일차적인 직무는 오계를 지키는 도덕적 사회 건설이라고 되어 있다. 통치자의 자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현실에도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불타의 모든 가르침은 고의 해결방법으로 일관되어 있다. 근본고의 해결방법이 좁은 의미의 종교적 가르침이라면, 사회고의 해결방법은 정치적 가르침이고, 이 둘은 하나의 근본원리 위에 있는 것이다. 불타의 정치적 가르침은 모든 중류의 고(苦)로부터 원천적 인 간해방이라는 원대한 이상의 실현을 위한 종교적 영역의 확충이며, 또한 정치적 가치를 종교적 영역에까지 승화시키는 통로이다.

"중립지켜 정의사회 대안 제시하자"

손혁재 〈열린사회연구소장〉

불교계는 대통령선거를 강건너 불보듯이 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중생이 앓으므로 나도 앓는다"는 〈유마경〉의 가르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선에 대한 관심과 대비방법으로는 지난 92년 선거에서 불교계의 일부 단체와 불교언론이 벌인 후보초청 정책토론회 등이 좋은 본보기가 되리라 본다. 그 당시에는 각 후보의 공약을 일방적으로 들어보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그 공약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불교계만의 이익을 위한 공약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또 불교계는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없이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자칫 권력의 불교 간섭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바른 대통령 만들기운동이나 부정선거 감시운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선거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불자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지 않다. 물론 불자대통령의 탄생으로 불교세가 확산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이다. 그러나 섣불리 불자대통령이나 불교의 확산을 꾀하는 것은 자칫 불교를 통속화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15대 대통령선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불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5대 대통령이 열어나갈 21세기에 불교의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는 불교계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불교계, 대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전불련 정책토론회.

전불련 '대선 어떻게…' 토론 요지

불교이익 넘어 국익우선 후보 선택
특정 정당 지지하는 구태 벗어나야

전불련이 지난 4일 종단협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불교계, 97대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종단 개혁불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는 데 모아졌다. 아울러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교계의 지도급 스님들이 특정후보 혹은 정당을 지지하는 구태를 보여주어서는 안된다. 신도들이 타종교에 비해서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불교를 주요한 표밭으로 인식한다.

○… 대표적인 예가 92년의 '상무대 비자금 80억원'이다. 정치인들은 돈으로 불교표를 모으는 구태를 올해도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기에 이번 대통령선거는 종단개혁불사의 원만한 성취를 평가하는 리트머스용지인 것이다.

○… 불자들이 이번 대통령선거를 불교의 이익만이 아닌 민족적, 국가적 이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노태우씨가 불자라 하여 많은 불자들이 지지하였지만, 노씨의 모습은 전혀 불자로서의 행동이 아니었고, 그 결과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 있다.

○… 불자들의 선거에 대한 주요 판단이 불교의 이해에 근거하기보다는 민족의 통일과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누가 앞당길 것인가 등 민족의 장래에 근거해야 한다.

목어

아버지의 가르침

옛날에 기로(棄老)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 나라에는 60세 넘은 노인을 내다버리는 국법이 있었다.

효성이 지극한 한 대신은 아버지를 차마 버릴 수 없어 땅속에 밀실을 만들어 남몰래 봉양했다.

어느날 힘이 센 이웃나라 국왕이 뱀 두마리를 보내면서 말했다.

"7일동안에 암수를 구별하지 못하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왕은 벌벌 떨며 대신들과 의논했으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를 땅속에 모신 대신은 집에 돌아와 혼자 애태우고 있었다.

부친이 물었다. "나를 숨긴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러느냐."

"아니옵니다." 아들은 사연을 말했다.

"걱정할 것 없다. 솜위에 뱀을 올려놓고 보아라. 나대는 놈은 숫놈이고 얌전하게 있는 놈은 암놈이니라."

아버지의 지혜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

트집꺼리를 만들려는 이웃나라는 색깔이 같고 몸집이 같은 두 마리의 암말을 보내왔다. 어미와 새끼를 구별하라는 것이었다. 왕은 전국에 포고하였으나 답이 없었다.

대신은 다시 아버지에게 해결방법을 구했다.

"말을 하루쯤 굶겼다가 풀을 먹여라. 어미말은 반드시 풀을 새끼말에게 밀어줄 것이다."

강국인 이웃나라는 모두 6번의 질문을 했으나 작은나라에 지혜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

매일 참선으로 자기를 닦는 원로 철학자 高亨坤옹(92)이 아들인 신임 高建 총리에게 일러준 '牧民官 3계'가 화제가 되고 있다.

'돈을 받지 말라.' '술을 잘 마신다는 얘기를 듣지 말라.' '누구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라.'

'어려운 시절'의 재상자리 뒤에는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아들의 실천이 있었다.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는 오늘, 이 땅의 아버지와 아들들은 가정교육이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에 얼마나 큰 힘으로 작용하는지 되새겨 보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0691

현대만평

박구원



농지법 개정하라!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좌 전문 외 불교공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경전강독
● 교양의식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정진과 개혁으로 민족과 함께 세계속으로

한민족 불교 중흥회 창립대회



문명 전환기적 현실에서 한국불교는 창조적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와 한민족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정진과 개혁으로 민족과 함께 세계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이제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민족불교중흥회 회원여러분께서도 창립대회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41년 3月20日 목요일 (오후2시)
■ **장소 :** 조계사 대웅전

▶ 연락처 · 한민족불교중흥회 (02)720-1656, 738-8081
· 집행위원장 정 념 상원사 (0374)32-6666

한민족 불교 중흥 창립 준비 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5 종로 B/D 3층 전화 : 720-1656, 738-8081 F.720-1657

신심·재력 두루갖춘 새인물



15일 출범 중앙신도회장 내정 송재건씨는

중원산업 등 6개 기업 소유
22년째 일요예불 빠짐없어
정치투명성 아직 검증안돼

15일 창립되는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내정자인 송재건씨(59·중원산업 대표)는 그동안 교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실무단장 혜창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지난 2월 "중앙신도회장은 정치지향적 인사를 배제하고,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가족구성원 전체가 독실한 신심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총무원은 송 회장내정자를 위의 세가지 기준에 대체로 합당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조건인 정치성 배제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불교계에 낯선 인물인데다 사회활동도 기업활동 외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본적지인 충북지역에서 대전중앙라이온스클럽 회장, 충북역도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회장내정 이후 조계사 주변에서는 여권의 대선주자 가운데 한사람과 전 청와대고위인사 등과도 친분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재정능력은 일단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정동문화회관 중원산업 경주온천관광호텔 중원실업 중원농산 중원농진 등의 기업체 대표직함을 지니고 있다. 중앙신도회에 2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셋째 조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일요일마다 부인 오세양씨와 함께 서울 홍은동의 옥천암에 들러 2~3시간의 기도를 거르지 않고 있다. 옥천암 주지 성원스님은 "22년전부터 옥천암에 나오고 있다"며 "재가신도로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송씨를 평했다.

한편 지난 2월 23일 창립된 직할교구(조계사) 신도회장 선출직후 기자들의 사진촬영과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 회장수락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중앙신도회 준비위의 한 관계자는 "총무원과 전반적인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아직도 조율할 부분이 더 있음을 시사했다. 총무원실무단은 송씨의 이력서를 비롯한 자료요청에 "아직 결재가 안됐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등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국회 불교관련 대정부질의 요지

"대장경전산화 6억 추가요청" 조영재의원
"경주 古都 보존특별법 촉구" 임진출의원



◇조영재의원



◇임진출의원

지난 2월 28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자민련 조영재의원(대전 유성)과 신한국당 임진출의원(경주乙)이 불교관련 대정부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영재의원은 "팔만대장경 전산화사업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불교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추가사업비 6억원을 특별지원해 줄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했다. 총 120억원 중 올해 소요되는 대장경 전산화사업비는 모두 18억원. 이중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 자체부담금이 8억원, 올해 정부 지원금 4억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나머지 6억원의 예산이 부족해 문체부에 추가사업비 6억원의 지원여부를 질의하게 된 것.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해 문체부에 8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절반인 4억원만 지원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영수 전 문체부장관은 이에대해 "예산관련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만 응답했다.

조영재의원은 또 불교관계법의 개정과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배분문제, 사찰주변의 무분별한 개발문제, 문화재 보수, 폐사지 복원 등 불교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임진출의원은 문화재보호법과 고도제한법에 묶여 극심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경주시민들을 대변해 '고도(古都)보존특별법'을 제안했다. 임의원은 또 "경북 경주, 전북 익산, 충남 공주·부여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도시들이 지닌 문제점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경주가 무분별한 개발로 희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문화재보존의 원칙을 담은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고도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고도보존을 위한 특별법 제정문제는 현행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여러 법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경 기자

"최소 소유 인정 정재음성화 막자"
"수행·전법비용 종단차원 분배를"

선우도량 '삼보정재와 수행자…' 수련결사 현장

제12차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 현봉) 수련결사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실상사에서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결사는 오늘날 자본주의적 현대사회경제환경 속에서 승가의 삼보정재의 형성(생산), 분배, 소비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되고 논의된 자리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수련결사에서는 대중토론을 통해 △삼보정재의 개념에 대해 형성과 생산적 측면은 상업적 재화나 자본증식이 아니라 신도들을 교화시키는 과정에서 보시받는 물질적 재화를 의미한다. △포교 등의 사회활동과 노후를 위해 스님들의 사적소유는 인정되어야 하나 소유형태는 공동소유로 전환해야 한다.

또 △소유물에 대한 분배 및 개인경비 지출 등 관리는 종단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등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삼보정재의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경전 율장에 나타난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이라는 주제로 제1발제에 나선 종호스님(동국대 강사)은 "불법승보와 그와 관련된 모든 것, 즉 불교교단의 재산을 총칭하는 것이 삼보정재"라고 전제하고 "무소유는 출가자의 자세확립과 내외적 성찰이 완성된 '자제할 수 있는 소유'를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밀원스님(불학연구소장)은 "시대에 따라 최소한의 사유는 인정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현봉스님(선우도량 공동대표)은 "지금 현재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 속에 이미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차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무소유가 아니다"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정립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불교교단사에 나타난 삼보정재 구조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이라는 주제로 제2발제에 나선 진일스님(감로암 주지)은 "〈법화경〉 사상을 토대로 스님의 건전한 생산 및 경제활동을 권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무소유만을 요구한다면 오히려 삼보정재가 음성화되는 문제를 파생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진일스님의 주장에 대해 법성스님(대승사 주지)은 "소유의 인정 및 생산활동 권장은 수행자의 출가의미가 퇴색될뿐 아니라 수행에 방해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변의 소유를 인정하되 승가의 기본윤리인 무소유정신은 고수돼야 한다"는 반론을 폈다.

또 '출가수행자의 경제행위와 삼보정재의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관련기사 116호 1·3면〉를 토대로 발표한 보각스님의 제3발제에 대해 성관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설문은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나 소유와 무소유에 대한 개념이 승단내에서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는다면 분쟁의 불씨가 될 뿐이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스님은 "상황윤리적 계율관에 따른 소유는 인정하되 공(公)개념으로써의 소유가 될때 삼보정재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선우도량은 이번 수련결사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4월 삼보정재와 출가수행자의 윤리성에 대해 기획좌담을 마련, 보다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상사=도필선·김정은 기자

시 론

장엄한 생명의 질서



김 용 정
〈前동국대 교수·'과학과 사상' 편집인〉

얼마 전 영국의 한 연구소는 유전자 주입에 의하여 양의 복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뒤이어 미국의 또 다른 연구소는 작년에 이미 원숭이의 복제에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사실 생명복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에 나온 것이었는데, 그 가능성이 이번에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물론 유전자 조작에 의한 품종 개량에서 보듯이 생명 복제에 관한 연구도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면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생명복제 왜 위험한가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전체에 대한 조망없이 진행되는 과학 연구는 일반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국지적인 이익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공업화의 진행에 따른 환경오염등에서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되었던 생명 복제와 같은 것은 그 이전의 어느 것보다도 더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 복제라는 것이 왜 그토록 걱정하여야 하는 문제인가 하는 점을 보다 총체적인 시각에서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모습이 지금의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일이 아니다. 흙 한 줌, 물 한 그릇, 공기 한 모금도 그냥 그 곳에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지중한 인연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물며 생명체야 어떠하겠는가? 35억년의 전 역사를 품고 있으면서, 무수한 세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 하나의 생명체는 참으로 장엄한 것이어서 그 어느 하나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란 없다. 그러므로 분별심으로 본다면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은 더 할 수 없이 존귀한 것들이다. 들 길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듯이 보이는 한 포기의 풀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 아미타불의 광명은 불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토록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우리들에게 당부하셨을 것이다.

기둥을 아무리 잘 다듬는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집이 지어질 수는 없듯이, 부분을 아무리 잘 안다고 하여도 그 부분의 지식만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 세계의 전체 모습을 알지 못하는 한, 개개 생명체를 그 하나만 떼어놓고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하여도 생명의 전 존재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서 생명 복제의 위험성이 드러나게 된다. 유전자 주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의 과정을 간신히 모방함으로써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는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고 파악되지 않는 생명의 전 존재를 책임질 능력을 과학은 가지고 있지 않다. 생명의 전 존재를 책임질 능력이 없는 과학이 생명의 질서를 마음대로 재단한다는 일은 마치 그 쓰임새를 모른 채 총이나 칼을 들고서 장난하는 어린 아이와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밖에 없다.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아는 사람이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전체 생명계내지는 전체 우주에 대한 안목없이 과학의 성과에 급급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생명 질서의 엄숙함을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연은 무진한 연기의 한 자락으로서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다. 그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난 우리는 그저 잠시 우리의 몸을 자연에 의탁하는 것뿐이지 그 자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릴 권리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자각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중중무진 인연법의 세상

그리고 그 반성의 기초 위에서 미래가 설계되어야 한다. 과학의 지엽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과학이 제공하는 체계적이고 믿을만한 정보에 기초하여 우주 속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반성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반성은 과학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의 모든 중생을 행복하게 하여야 한다는 보살 정신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이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 '97년도 제1기 연구과정 교육안내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 학술, 출판, 교화, 불교대사전 편찬**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한문 불전강좌와 함께 범어, 팔리어, 티벳어 등의 불교원전연구과정 및 불교어학연수 과정을 개설, 아래와 같이 '97 제1기 일반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어학연수과정

구분	코드	강좌명	교재	강사	강의시간
불교어학과정	H-01	불교한문강독	悳能 저, 六祖壇經	김영욱 (고려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격주 목19:00~21:00
	S-01	범어어학연습	Introduction to sanskrit	이지수 (동국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매주 토 14:30~16:00

불교어학과정 중 P-01 팔리어어학연습과 T-01티벳어어학연습은 하계 계절 학기에 다시 개설됩니다.

기초학습과정

구분	코드	강좌명	강사	강의시간
기초학습과정	1-02-1	불교학개론	최봉수 (동국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매주 토11:30~13:00
	1-03-1	인도불교사상사	문을식 (동국대학 강사, 본원 상임연구원)	매주 토 13:00~14:30

불교원전연구과정

구분	코드	강좌명	교재	강사	강의시간
한국불교문헌강독	K-11	한국불교금석학	역대고승비문 (고려시대편)	지관 스님 (본원 원장)	격주 목19:30~21:00
불교논서연찬	S-11	한문원전	원효술, 大乘起信論 疏	지관 스님 (본원 원장)	매주 금 19:30~21:00
	S-11-1	범어원전	世親 찬, 具舍論	이종철 (정문연 교수, 본원 전임교수)	매주 금 17:00~19:00
	S-11-2	범어원전	安慧 주, 唯識三十頌	이지수 (동국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격주 토 16:00~18:00
	S-11-3	범어원전	龍樹 저, 廻諍論	김성철 (동국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격주 토 16:00~18:00
	T-11	티벳어원전	Kamalasila 찬, 修習次第	허일범 (진각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격주 수 19:00~21:00
근본경전강독	P-11	팔리어원전	D.Andersen, A Pali Reader A Pali Glossary	최봉수 (동국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격주 수 19:00~21:00

■ 제출서류 : 입회원서(일반) 수강신청서 2부(본원 소정양식) ■ 접수처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 접수기간 : 1997년 3월 말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동승동 192-10(우당기념관 2층) ☎ 765-9602~3, 745-1663 FAX 765-5673

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院長 李智冠

법회 안내

실상선원(02)499-4442

기도불공 및 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기도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경전공부 매주 일 오전11시
기초교리 강좌
3월 12일 오전11시, 오후8시부터

무진법장사(02)932-2333

초하루법회 1~3일(음)오전10시30분
인등기도 15일(음) 오전10시30분
지장재일 18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24일(음) 오전10시30분
일요합동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지역법등법회 매주 목, 금 오후2시
거사, 법륜회 매주 일 오전11시
첫째주 목 오후7시
교리반 매주 화, 수요일 오전10시
경전반 매주 목, 금요일 오전10시
노래부르기 매주 월 오후2시
꽃꽂이 매주 목 오후2시
사찰순례기도 3월 13일 오전6시
마곡사 · 성국사 · 각원사

만덕사(02)715-3600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신도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12시30분
청년법회 매주 토 오후5시

덕암사(02)451-459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강남포교원(062)539-2631

수계교육 3월 10일부터 14일
오전10시, 오후7시30분
출가재일 3월 16일 오전11시 설법전
수계식 3월 16일 오후1시30분
정진기도 및 사경법회
3월 17일부터 22일 매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본부 모금 현황

△서울역 거리캠페인 512,230원 △청년정토회 1,841,000원 △대구를 사랑하는 모임 190,000원 △밥한공기 나누기 모금 1,037,000원 △도문스님(대성사) 1,000,000원 △김학용 50,000원 △이현숙 3,000,000원 △노귀남 150,000원 △이혜윤 100,000원 △이혜옥 100,000원 △명호근 100,000원 △최경숙 50,000원 △김순옥 50,000원 △이병희 30,000원

〈4일 현재 총 105,640,195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79-96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참다운 인성가꿔 미래의 주역되길"

동국대 송석구 총장



이제 여러분은 대학이라고 하는 새 도시의 정취와 낭만 속에 창조적 미래를 기약해 나아가야 할 주인공이 됐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금년으로 개교 91주년을 맞는 전통의 민족대학입니다. 따라서 신입생 여러분은 동국의 전통과 명예를 잇는 미래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또 사회와 인류를 위해 탁월한 자아성취를 지향하는 냉철한 이성과 젊은이다운 뜨거운 열정의 조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사상을 근본으로 공부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참다운 인성을 가꾸고 도덕적 인격완성을 견학정신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삶의 수단으로서 지식의 수용도 중요하지만 우주에 내재해 있는 무한한 참다운 이치를 터득하는 지혜의 눈으로서 학문의 세계를 개척하는 정신도 소중할 것으로 압니다.

바야흐로 우리 동국은 21세기를 향하여 새롭게 비상하는 나래를 펴고 있습니다. 동국의 새역사는 여러분을 선택했으며 여러분 또한 동국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참사람 만드는 열린교육 도량' 동국은 빛나는 눈과 자부심으로 가득한 새내기 여러분들의 늠름한 기상을 기대합니다.

'97 입학식사

"정규대 첫 입학생 21세기 선지식 기대"

중앙승가대 방지하 총장



여러분이 오늘 입학하시는 이 순간은 우리 종단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종단사에 있어 최초로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정규대학에 입학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4년 후면 21세기 한국불교를 책임질 선지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대학은 종립학교로서 불교교육의 메카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교육환경도 수행하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사장 스님을 위시하여 종단의 관계자들과 본인 그리고 학교 교직자 스님들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승가인으로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께 학교의 책임자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승가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또 학인이기 이전에 수행자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교수님과 교직자와 선배들을 잘 따르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대중청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행을 지킬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자로 흐트럼없이 학업에만 정진할 때 세계불교의 희망은 바로 우리 승가대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차로

난민사진전 기금 전달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은 지난 4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 허창수신부의 예방을 받고 세계난민사진전 기금으로 5백만원을 전달했다.

미주 북한동포 돕기 지원



법륜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3~14일까지 미주지역에서 열리는 북한동포돕기운동을 지원키위해 미국 센디에고등 6개 도시를 방문한다.

마하연포교원 개원 법회



일지 부평 마하연포교원장은 지난 4일 조계종 종회의장 설정스님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원 개원법회를 열고 원장에 취임했다.

동방대학원 기금 마련전



김용현 동방연서회장은 오는 98년 3월 개교하는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건립 기금조성을 위한 전시회를 가졌다. 지난 5~11일 공평아트센터에서 마련된 전시회에는 2백70여점의 서법작품이 출연됐다.

영산국제신업대 초대총장



정천구 인천대 정치학과교수는 지난 10일 영산국제산업대학교 초대 총장에 취임했다. (0523)386-9114

'한국인의 정신구조' 특강

백상창 연세대의대교수는 오는 12일 오후2시 불교방송 공개홀에서 '한국인의 정신구조'를 주제로 강연한다.

문화예술인협회장 뽑혀

김흥우 등국대 교수(연극영화학)는 한국문화 예술인법회 제7대회장으로 선출됐다. 문화예술인법회 상임부회장에는 안호근씨 부회장에는 박찬갑 · 문미봉씨가 Z·각 선출됐다.

동대 만해석좌교수 맡아





시인 신경림씨(62 · 사진위) 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54)가 동국대 국문과 '만해석좌교수'로 강단에 선다. 동국대 국문과 출신인 신경림 조정래교수는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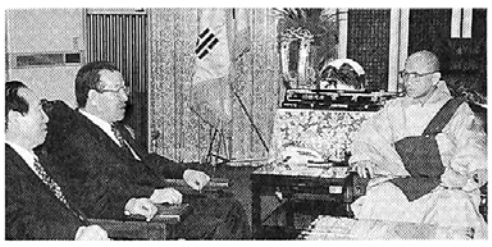
동국대 예술대학원 입학

김흥국 불자가수회 회장은 지난 3일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했다.

대불청 대구지구장 당선



김장근 대구불교산악회장은 지난 2월 28일 보현사법당에서 열린 대불청 대구지구장 선거에서 제10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월주스님 김종필 총재와 시국환담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지난 7일 월주 조계종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비상시국에 관한 불교계의 대응에 감사입장을 전했다. 정상구 상임고문(자민련 불자회장), 박철언 · 주양자 부총재, 권수창의원(국회정각회 간사) 등이 수행한 이날 예방에서 김총재는 정국현황에 대한 당의 입장과 불교현안 등을 논의하고 한민족공동체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6대종교 3 · 1절 공동기념식

불교 · 원불교 · 기독교 등 6대종교는 지난 1일 종로 탑골공원 팔각정앞에서 3 · 1절 78주년 공동기념식을 봉행했다.

2백여명의 불자 ·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월주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종교지도자들이 합심해 일으켰던 기미년 만세운동에 대한 회상은 앞으로 종교간 갈등을 극복하고 민족대의를 위한 결의다"고 말했다.



만해스님 어록비 망우묘원에 제막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묘지공원에서 卍海 한용운스님의 행적과 어록을 새긴 연보기록비가 제막됐다. 이문재중랑구청장 유족 한영숙씨 전보삼(신구전문대.만해사상연구소 소장) 김익수(한국체대)교수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된 연보기록비는 중랑구청이 높이 1.5m 폭1.2m의 크기로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했다.



동국대 '감사와 축하의 밤' 열어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2월 28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학교발전기금 3백22억원 조성을 기념하는 '감사와 축하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을 비롯하여 청하 월주 설정 태응 동광스님과 최형우신한국당 고문 황명수총동창회장 서석구(금강종합건설사장) 이순목(우방회장)씨 등 1천5백여명이 참석했다.



'진관스님 석방촉구 후원의 밤' 행사

진관스님 구속진상규명과 석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위원장 명진스님)는 지난 4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진관스님 석방촉구를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후원의 밤에는 설정(종회의장) 영담(석왕사 주지) 청화(청평사 주지) 오창익신부(천주교 인권위) 김근태 장영달의원 연기영 동국대 교수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육사 화랑호국사 졸업 법회

육사 화랑호국사(주지법사 이희용)는 지난 5일 교내 대법당에서 동광스님(도선사 주지) 전상배장군(국방부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3기 졸업생 환송법회를 봉행했다.

박광서 우리는 선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21세기는 불교의 시대"라며 "불자로서 예의바르고 사리분별있는 군인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역사의 아픔 재조명 됐으면…"

'정신대 전시관' 건립기증 곽 정 환 회장

"3 · 1절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에 대동가족의 작은 정성을 정신대전시관 건립사업에 보탤 수 있게돼 기쁩니다. 오랜 세월동안 역사속에 묻힌채, 사라질뻔했던 정신대할머니의 통한의 과거가 사회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지난 1일 기공식을 가진 나눔의집(원장 혜진) 정신대전시관을 건립, 기증하는 곽정환회장(47)의 말이다.

평소 인간의 중심이 되는 사회,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는 소신을 피력해온 곽회장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운영취지에 동참하게 됐다"고. 이어 곽회장은 2개동 1백여평 규모의 정신대전시관 또한 황토방으로 짓고, 할머니들의 지속적인 건강체크 및 나눔의집 운영에 관심을 갖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도필선 기자

생활 속의 불교 (113)

사랑이 아니고는 아무 것도 쇄신할 수 없다.

"대비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이다.자기만의 기쁨과 편안함, 이익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복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풀 한 포기도 버리지 않는 대비심이 있어야 한다. 올바른 수행자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흔히들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간에도 그렇고, 남남끼리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제 보기에 마음에 들면 잘한다 이쁘다하고 마음에 안들면 밉다 싫다고 한다. 그에따라 말도 부드러웠다가 거칠었다가 벌컥 화를 냈다가 한다. 남이 해주는 말도 듣기 좋게 속삭여주면 좋다하고 잘못을 지적해주면 싫다고 한다.

이런 일들은 다 자기를 깎아 먹는 일이다. 분별심 일체를 주인공에 놓고 항상 자비롭게 대하라.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말 없는 중에도 마음의 통신으로 서로 에너지를 주고 받으면서 같이 하고 같이 갈 수가 있다."

사랑 중에 가장 지고한 사랑은 불 · 보살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워낙 크고 넓어 대자대비요 일체 만물을 한 몸으로 보기에 동체대비이다.

인간끼리의 사랑에서 그에 버금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주기만 할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이며 자식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안내하는 사랑이요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그야말로 지고지순(至高至純)하다. 그러기에 그 사랑에는 절로 감화가 따르고 정화와 쇄신이 있으며 위안과 평화가 있다.

아낌없이 주는 모정(母情)을 닮은 사랑,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엔 평안과 만족이 있다. 거기엔 미움이나 적의(敵意)가 발을 붙일 수 없다. 억압 · 공격 · 학대 · 부정 따위가 따르지 않는다. 비방이나 기망 질시도 없다. 아니,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봄 볕에 쌓인 눈이 그만 녹아 내리듯이 그렇게 녹아 내린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상대를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사랑하면 그도 내게 그렇게 한다. 꽃이나 미물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마음이 가지 않는데 상대가 내게 응해 올 리가 없다. 고로 먼저 사랑해야 한다. 누구라도 감싸고 안아들여야 한다. 그러면 자석과 자석이 감응하듯이, 물과 우유가 잘뒤섞이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하고 서로를 찾는다. 마음의 화답이 자연스레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에 치우치고 거의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당연시한다. 아낌없이 주는 삶, 누구라도 감싸는 삶을 말할라치면 그건 성현의 몫이라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늘 불안 · 불만 · 공포 · 고통 · 긴장 따위가 동전의 앞 뒤처럼 따라다닌다. 거기엔 만족이란 없다. 언제나 스트레스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불평 · 불만 · 회한 · 고뇌가 쫓아다닌다. 하지만 주는 삶에는 평화가 있다. 안녕과 만족이 있다. 경전 말씀으로는 사랑엔 열 한가지 복이 따른다고 한다. 사랑은 그래서 해탈로 이끄는 바라밀 수행의 텃 밭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만족과 안녕의 길을 버리고 불만과 고통의 길을 택하는 것일까? 세간에선 인간의 이익추구 본능을 그 해답으로 제시한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왜?

부모가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은 자식의 이익과 행복을 자신의 이익과 행복으로 동일시(同一視)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부모의 자아의식은 자식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고로 자식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자식의 이익이 나의 이익이 된다.

따라서 내가 '나'라는 울타리를 넓혀가면 그것이 넓어지는 만큼 비례하여 겨루고 다툴 상대는 줄어든다.

넓어진 내 울타리 속에서 내가 나와 다투고 긴장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고로 사랑의 마음을 방사(放射)하라. 아낌없이 주는 마음을 내라. 넓힐 수 있는데 까지 넓혀라. 내는 만큼 넓어진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 것도 정화할 수 없고 바꿀수 없고 쇄신할 수 없다. 나를 바꿀 수도 없고 상대를 바꿀 수도 없다.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우리에게 준 가르침이다.

협찬 : 김 남 운

"날씨에도 연기법 적용돼요"

산문밖의 수禪

기상예보관 장익순 씨



인류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오래전부터 이 지구의 기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해 왔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바람 한 점 없이 포근하고 따뜻한 날이 계속되기도 한다. 대지에 비가 내리고 다시 태양이 비추면 만물이 생장한다. 오랜 세월 끝에 생명이 다해 흙으로 돌아간 생명체는 빗물에 쓸려 강으로 바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비로 눈으로 내려오는 일을 되풀이한다.

자연, 기상의 변화는 이처럼 연기의 진리를 그대로 말없이 보여주는 인간의 스승이며 인간 삶 자체이기도 하다.

일체는 인연따라 생긴 것으로 무상하고 무아인 것이며, 이러한 토대위에서면 무상인 채로 상주(常住)이며 무아인 채로 진아(眞我)인 세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 연기의 가르침이다. 일체가 공하나 그 공 또한 공이 아닌 것처럼 우주와 생명, 세계와 인생은 연기의 반복인 것이다. 기상의 변화도 연기법으로 설명되어진다.

그 중중무진한 연기의 세계를 장익순씨(47·동두천기상대 예보관)는 지난 25년간 실지로 경험해 왔다.

그는 "기상관측은 풍향, 풍속, 기압, 기온, 습도, 지중온도, 철관지중온도, 증발량, 강수량, 일사량, 일조시간등 많은 수치의 조사를 통해서 짧게는 내일을, 길게는 한주, 한달, 계절의 일기를 예보하는 일입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지요"라고 설명한다.

비는 도대체 왜 오는 것일까? 바람은 왜 부는 것일까? 비를 적당히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기상변화에 대한 그의 호기심과 질문들은 그를 기상예보관의 수행길로 이끈 풀리지 않는 화두와 같은 것이었다.

"제주도 기상대에서 첫근무를 시작했는데 섬사람들의 기상변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놀랐습니다. 제주 어부들은 기온과 풍향, 기압배치가 어떠해야지 고기잡이 나가기에 적당한가를 오랜 경험을 통해 이미 터득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늘 제가 근무하는 기상대에 전화를 걸어 상세한 기상정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때 정말 우리의 삶이 기상변화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주 기상대 근무를 시작으로 서산기상대, 김포공항기상대, 보령기상관측소, 중앙기상청 산업기상과 근무를 두루거친 그는 지난 90년 12월부터 92년 2월까지 남극 세종기지에서 남극의 기상을 관측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머리속에는 지리가 아닌 날씨로 본 전국지도가 그려져 있다.

기상관측은 1 더하기 1이 항상 2일 수만은 없다. 때론 3이 되고, 4도 될수 있는 것이 바로 기상이다. 기상관측은 단순한 관측의 결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기상관측관의 오랜 경험 축적이 더하는 과정을 거쳐서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84년 서울 망원동에 한강이 범람하는 큰 수재가 발생했었다. 인력으로 어쩔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상관측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폭풍우 끝에도 햇빛은 나고, 수재 후에 더욱 강화되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보며 '세상살이에 곤란이 없으면 제 잘난체 하는 마음과 사치한 마음이 일어난다. 근심과 곤란으로써 세상을 살아가라'는 〈보왕삼매론〉의 가르침으로 마음을 달래곤 하였다.

기상 재해·지구 온난화 환경훼손이 낳은 재앙

기상관측 25년째 외길
세종기지서 남극기상도 관측
인공강우 자연질서 파괴 우려

"기상은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첨단의 과학입니다. 건축을 하는데도 그 지방의 강수량에 따라서 몇 개의 하수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결정됩니다. 강수량은 500㎜인데 하수구는 200㎜만큼만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기상현상이 상품의 판매 및 유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기상예보나 이상기상 현상의 출현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경제적인 생산활동에 시도하려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장 우리의 일상만 보더라도 비가 오면 우산없이는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허허허."

장익순 기상예보관은 자신의 기상철학을 덧붙여 기상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에게는 기상학의 발달과 더불어 기상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걱정스럽다.

"공기중에 수증기가 많아 구름은 충분히 있지만 비가오지 않거나 조금밖에 오지 않을 때 구름속에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등 빗방울을 잘 형성되게 하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공급해 줌으로써 비가 오게 하거나, 적게 오는 비를 많이 오게 하는 인공강우의 방법등이 이미 외국 여러나라에서 시도되어 실용화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인공강우의 원리를 응용해 우박의 억제나 공항내의 안개를 없애는 일, 태풍의 강도 감소등 다양한 응용기술개발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좋은 점도 물론 많지만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할 대법칙이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파괴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듭니다. 좋은 방면으로만 사용된다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늘 생각해야 하니까요."

선업은 더 큰 선업을 낳고, 악업은 더 큰 악업을 낳는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과 자연에 두루한 큰 진리라고 장익순씨는 강조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뭄, 홍수, 폭염, 혹한 등의 기상재해와 오존층파괴, 산성비, 온실기체의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은 다름아닌 우리 인간이 자연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인간에 의해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그 결과가 자연에 의해 다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이은자 기자

4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문 불교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사대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사대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지요.

〈최용권·영남대〉

답 창조니 진화니 하는 말부터가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진화와 창조가 다 한마음의 나툼입니다. 굳이 그것을 나눈다면 창조란 한 생각 일어난 것이고 진화란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내고 움직이는 게 다 진화이면서 창조요 창조이면서 진화인 것입니다.

사대는 어디서 비롯되었느냐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유위와 무위가 둘이 아니고 에너지와 질량이 둘이 아니며 마음과 물질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위와 무위, 마음과 물질을 둘로 보는 한 서로간에 들고나는 도리를 상상할 수도 없을게고 그걸 모르는 한 물질세계의 처음이 어디냐는 의문엔 결코 답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가령 사대의 원천을 물질계의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의 원천은 또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물음은 끝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현대과학이 물질과학으로 남아있는 한 풀 수 없는 숙제가 되지요. 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심성과학이라야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모든 생명체 모든 물질이 다 한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본다면 너와 나의 몸뚱이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 두두물물이 다 한마음의 나툼입니다.

물론 현상계에서 보면 너와 나, 두두물물이 뚜렷이 다르겠지만 근본 자리에서 보면 둘이 아닙니다. 나툼이자 공이요 공이자 나툼이니 그야말로 진공묘유인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생명, 우주전체는 너나 할것없이 공생이며 공용이고 공식 공체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둘이 아니기에 마음은 걸림이 없이 사대로 통신이 되고 자력 광력 전기력 이랄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자재롭게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는 마음의 꽃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비법이 있습니까

문 스님께서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병을 낫게하는 도리를 일러주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공부를 가르치는 것으로 아는데 병이 낫는 어떤 특별한 방편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청문·경남 양산시 유산동〉

답 무슨 비방이라도 있는 줄로 아시는 모양인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 공부가 살아가는 도리와 별개인 것도 아니지요. 불교라고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도리와 거기서부터 갖가지로 벌어진 이 세계의 돌고 도는 이치를 직속으로 일러준 진리의 말씀 그것이지요.

그러니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고 불교의 가르침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이치가 그대로 불교요 불교가 곧 살아가는 이치와 다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 마음 따로 병 따로이겠습니까?

예컨대 내 몸뚱이 어느 한 부분에 고장이 났는데 그게 내 몸과 따로 따로 생긴게 아니라 그냥 내 몸이지요. 그러니까 병을 나와 따로 볼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은 나와 둘이 아닌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내 몸에 병이 난 것도 다 내 주인공에서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온 자리에 되놓아야 하겠지요? 거기서 나온 것이니 해결하는 것도 거기서 하라고 말입니다.

몸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게 병을 고쳐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병이 나게 한 것도 그대요 병을 낫게 하는 것도 그대이니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맡기고 관하라고 일러줄 수 밖에요. 가령 '주인공! 병이 나게 한 것도 당신이니 낫게 하는 것도 당신밖에 할 수 없잖아!' 하고 밀어놓으라고 말해주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기도라고 해도 좋지만 기도하는 자와 기도 받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진하디 진한 마음으로 말없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나와 거울에 비친 나의 대화같은 것이지요.

이것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그랬듯이 돼지를 건질려면 돼지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뱀을 건질려면 뱀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병을 건질려면 병과 내가 둘이 아닌줄 알고 철석같이 믿고 들어가야 내가 나를 해치지 않듯이 병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걸 공부 삼아 일러주니까 어떤 분들은 날 보고 '저이는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몸뚱이와 마음을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란 참으로 보배같아서 때로는 약사여래도 되고 때로는 지장보살도 되고 도무지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금강경 독송회 도서출판 요한의숲 전화)02-742-0172 팩스)02-766-9305

마음공부베스트 4

그 마음을 바쳐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닦는마음 밝은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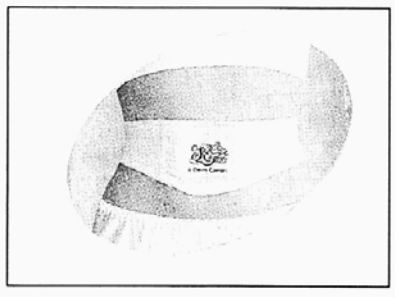
김재웅 지음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진 영원의 행로를 한 걸음 한 걸음 디디는 길 가는 모든 이(道人)들의 고통과 그 해탈을 위하여.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금강경 독송회 엮음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동남아 '교학' 구미 '명상' 위주

'세계불교 수행체계' 가산불교硏 학술회의

남방불교권이 삼장 중심의 교학전통을 이어오는 동안 한국은 통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선수행을 강조했다. 일본은 교학과 수행을 상호 보완해 발전시켰고 유럽과 미국은 명상수행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8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과 공동 주최한 '열린 세계에 있어서 승가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에서는 11개 불교국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 〉안은 주제 발표자.


◇일중스님 ◇정원스님 ◇덕조스님 ◇정엄스님 ◇소남갈젠스님
◇지인스님 ◇지관스님 ◇현문스님 ◇진월스님 ◇종호스님

일본 선학연구 비중 높아 태국 국가시험 등 엄격
티벳 사유 강조 교육체계 중국 불학원 중심 운영

스리랑카 뛰어난 교학체계에 비해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는 수행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전통적인 사원 교육기관인 빠리웨나(pirivena)는 승려 기본훈련과 영어, 산스크리트어 등 각종 어학과 역사, 지리 등 기초교육과 불교학, 논문 등 고등교육 등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해 승려를 배출한다. 이렇게 엄격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의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스리랑카 불교의 특징이다. 실질적으로 삼장이 소의경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수행전통의 맥을 찾기란 쉽지 않다. 최근에 들어 숲속 수행풍토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중·켈라니아大〉

태국·미얀마 국가지원을 받으며 상좌부불교의 전통을 지키는 태국의 승려교육은 체계적이고 엄격하다. 국가시험은 팔리삼장의 이해·암기력을 위주로 팔리어·법구경·율장 등이 주요 과목. 전문학교와 불교대학에서 수학하면 시험볼 수 있다. 미얀마의 교학 역시 상좌부불교 교학의 전당인 전문강원이 주류를 이루며 현대적인 학문을 장려하는 곳도 있다. 이곳을 이수하면 팔리경전시험과 법사시험을 치르는 등 태국과 비슷하다. 자유로운 숲속 수행 형태를 지닌 태국과 미얀마는 위빠사나와 출입식념(出入息念)을 수행법으로 택하고 있다. 〈정원·동경大〉

중국 문화혁명을 겪은 중국은 불학원(佛學院) 중심의 교학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행체계는 퇴보했다. 승려는 불학원에서 불교학, 문화사, 교리 등을 4년간 배우지만 동안거 기간동안 하루 2시간의 좌선이 수행의 대부분이다. 〈덕조·대만불학연구소〉

대만 대만불교는 정토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정토불교를 모태로 하면서도 율종, 선종, 밀교와 대중불교에 이르기까지 각 종파가 조금씩 다른 수행법을 견지하고 있다. 또 승가교육은 불학원이나 연구소마다 다른 학제와 과정으로 각기 독자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정엄·동경大〉

티벳 교육체계는 14세기에 형성된 교육체계를 꾸준히 지켜오고 있다. 승원(僧院)에 입교한 승려는 15~20년동안 반야학, 중관학, 논리학, 아비달마구사론, 율학 등을 교육받는다. 논리와 철학적 사유를 강조한 교육체계에 따라 근본불전과 주석을 암송하고 티벳어, 의학, 약학, 점성술 등을 익힌다. 〈소남갈젠·달라이라마법왕사무소〉

일본 임제종과 조동종은 선(禪)이 주(主)가 되고 경전은 종(從)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임제종은 간화선풍을 지니며 임제종대학을 중심으로 원전번역, 데이타 베이스 구축 등 선학(禪學)연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조동종은 여타 종단과는 달리 두 곳에 본산을 두고 모든 승려가 이 두 본산에서 일정기간 수행을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등 엄격한 수행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인·화원大/지관·애가학원大〉

유럽 전문승려교육기관 보다는 인도학과를 개설한 대학 중심의 선적(禪積)연구가 활발한 교학체계. 교육내용은 심리학, 철학, 비교종교학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외에도 원전장경들을 중심으로 율장과 논장을 연구한다. 명상 수행이 대중적인 추세를 이룬다. 〈현문·프라이부르그大〉

미국 상좌부, 대승, 금강승계의 불교가 혼재해 있어 교학체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수행체계 또한 백인계 불교인은 명상수행을 따르고 아시아계 불교인은 전통방법을 택하고 있다. 〈진월·버클리大〉

한국 조계종의 교육체계와 수행체계로 설명된다. 조계종은 기초교육기관과 재교육기관으로 교육체계를 나누고 행자교육원, 승가대학, 학림, 승가대학원, 율원, 선학연수원, 중앙연수원, 특수학교 등을 개설해 놓고있다. 교육내용은 초발심자경문, 사집, 원각경 등과 화엄경, 염송, 전등록 등의 선적이 주를 이룬다. 선적교육에 걸맞게 수행체계 역시 내면의 성찰을 강조한 선수행으로 집약된다. 〈종호·동국大〉

오종욱 기자

日나라현서 백제대사터 발견

금강기단·기와등 발굴 … 아스카시대 최초 국립사찰 추정



백제인들에 의해 일본 역사상 최초의 국립사찰로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백제대사(百濟大寺·구다라 노오데라)' 유적이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발견됐다.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월27일 나라현 사쿠라이(영정)시 기비(吉備) 연못터 부근에서 일본국가불교의 개막을 알리는 아스카(飛鳥)시대 최대사찰인 백제대사에서 거대한 금당기단과 기와등이 발굴됐다고 발표했다.

백제의 미륵사나 신라의 황룡사와 비견되는 7세기 아스카시대의 최대사찰인 백제대사는 〈일본서기〉에 의하면 조메이(舒明)왕 11년(639)에 백제대궁(百濟大宮)과 함께 왕명에 따라 세워진 최초의 사찰로 그 안에는 9층탑과 금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찰은 이후 옮겨져 '고시대사(高市大寺)', '대관대사(大官大寺)' 등으로 개칭되어 불려졌다.

백제인들에 의해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대사는 백제에 의한 일본의 불교전파와 그 영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열쇠였으나 그동안 그 위치가 밝혀지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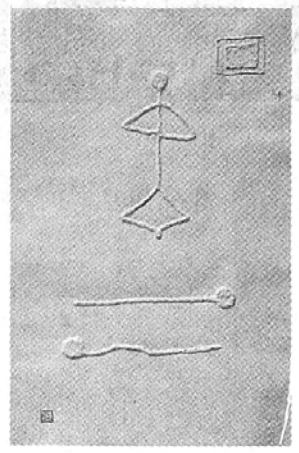
이번에 발견된 금당기단은 동서 약 36m, 남북 약 27m, 높이 약 2m로 발굴조사팀은 "당시 호족사찰인 법흥사(일명 飛鳥寺) 금당기단의 약 2.5배인 크기나 주변에서 출토된 기와의 크기로 보아 연대가 〈일본서기〉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백제대사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금당터 왼쪽에 9층탑의 터로 추정되는 토단도 발견됐는데, 그 규모로 볼 때 신라의 황룡사목탑과 거의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윤기씨(한일역사문학연구회 회장)는 "아스카시대 최대사찰인 백제대사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한일고대불교사 연구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라고 전제하고 "백제대사는 백제대궁과 함께 백제계승의 의미를 담아낸 것으로 백제불교가 일본고대국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윤기석 기자

法數로 배우는 불교 〈8〉

이변과 중도


◇함순욱作

치우침 없는 마음자리 '중도'

"저울바늘 '0'의 자리 놓치지 않듯 生死·有無 등 이변적 견해 버려야"

사람들이 물건을 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울에는 무게의 양을 나타내는 눈금과 함께 표시바늘이 달려 있다. 저울이 제 노릇을 하려면 표시바늘의 역할이 정확해야 한다.

정상적인 저울은 늘 0으로부터 출발하여 0으로 되돌아와야만이 제 구실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저울의 표시눈금을 우리는 불교수행에 적용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경계에 따라 움직인다. 무게에 따라 움직이는 저울의 바늘처럼 보고 듣는 경계에 따라 항상 동요하는 것이 평소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다. 다만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 저울의 바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울의 움직임은 어떤 경우라도 0의 근본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마음의 움직임은 늘 저울의 0과 같은 근본을 등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0과 같은 근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중도(中道)를 가리킨다. 중도란 일체의 치우침 없고 속박됨이 없는 부처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고루 갖추어져 있는 불성이나 반야와 같은 마음의 근본바탕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은 바로 이 중도의 근본에서 벗어나 애초부터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기울어진 마음은 우리들에게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지혜를 가리는 무지(無知)를 낳게 한다. 마치 0으로부터 출발되지 못한 저울의 표시바늘에는 무엇을 달아도 제 무게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중도를 상실한 채 쓰고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을 보건 세상의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 그저 왜곡되고 기울어진 가치와 극단적이고 상대적인 변견(邊見)만이 있을 뿐이다. 중도를 상실한 마음엔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 영원과 종말, 나와 너, 옳고 그름 등의 모든 상대적 가치인 이변(二邊)을 진실로만 여기고 그것들이 본래부터 실재하지 않는 공(空)한 것임을 모른다. 이변은 유 아니면 무, 생 아니면 사, 자 아니면 타 식의 상대적 분별의식으로 모든 속박과 한계로부터 벗어나 홀로 우뚝한 중도실상과는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변의 치우친 견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와 견해들을 모두 인정하지 말라거나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중도는 자신이 일으킨 일체의 가치와 견해를 때에 맞춰 쓰면서도 그 본질을 깨달아 결박당하지 않는데 있다. 저울의 바늘이 물건의 양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0의 근원은 놓치지 않듯 중도의 삶은 이변을 인연따라 일으키되 그 이변에 듀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이다.

불자는 항상 저울의 바늘을 점검하듯 자신이 지닌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움직이는 박물관' 전시회 11월까지 17개 지역 순회

백제금동향로를 비롯 다수의 성보문화재가 문화소외지역과 지방학교를 찾아 나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운영하고 있는 '움직이는 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 신라토우, 만화로 보는 박물관 등의 주제로 3월12일 장호원초등학교(경기)와 현대전자산업(경기)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총17개 지역서 전시회를 연다.

성철선사상硏 학술비 지원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이 올해 불교관련 학술연구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선불교와 일반불교를 비롯해 불교학과 관련한 모든 연구 분야를 망라한다. 대상은 전임교수, 소장학자, 지방승가대의 강주·중강 등이며 원전윤독회(5명 이상)의 활동도 지원한다. (02)265-5216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 교 학 과	2년	•주간 ○명 •야간 ○명	●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명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2년	•주간 ○명 •통신 ○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명 •야간 ○명		
불 교 미 술 과	2년	•주간 ○명		
신문방송과(불교보도과)	2년	•주간 ○명 •통신 ○명		

2. 학 교 연 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분교체결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전 형 방 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접수 및 문의처

본교 : 511-2026~8
조계사앞 삼보원 :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삼 화 불 교 대 학

한 국 역 학 대 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바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교육기간 : 6개월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담학

3.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입학금 및 수강료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명함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희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도대학 유학알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한국역학대학
서울 송파구 송파1동 15-3 해광 B/D4층
대표전화
(02)423-6446



무생계경과 변상도

앞부분에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이라 적혀있는 지공화상 계첩은 수계자가 지켜야할 덕목이 금니사경(金泥寫經)으로 섬세한 두 장의 변상도와 함께 담겨있다.

지공스님 수결과 도장

금자도장을 날인하고 다시 수결(手決)한 형태가 완연하다.



세월의 윤회 "언제나 불국토…"

해인사서 귀중문화재 대량 발견

고려옷 671년만에 세상밖으로
지공화상 계첩 승풍연구 자료
보석장엄佛 티벳외 없는 성보

이번에 발견된 고려시대 의복은 고려복식을 알게 해 주는 새로운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요선철릭(腰線天翼)은 아직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최초의 복식자료로, 저고리의 형태가 후대의 것과 현저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매무새나 선의 형태가 현대복식의 미감을 능가하는 탁월한 아름다움을 지닌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또 발견된 복식 가운데 '장수지원(長壽之願)'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는 것이나, 소매 없는 적삼이나 소매만 복장으로 넣은 것은 나머지를 착용함으로써 부처님의 가피를 바라는 종교적 염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시대 의복으로는 지난 73년 충남 서산 문수사 금동불에서 발견된 1346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백저단수포(白苧袖袖袍·동국대박물관 소장)와 온양민속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130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紫衣·붉은 옷)를 비롯한 3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 삼국시대 이전의 의복은 단 한점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 복장에서 의복이 발견되기로는 지난 84년 상원사 문수동자상에서 나온 세조의 어의(御衣·상원사 보장각 소장)로 추정되는 2벌의 옷이 처음이다.

고려시대 감지(紺紙)에 금자(金字)로 쓴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이라 적혀 있는 지공스님 계첩(수계자가 수지하는 계목을 적은 것)에는 계목(戒目)을 비롯 사귀의(四歸依), 참회, 국태민안 기원 등의 내용이 실려있어 고려시대 종교관과 승풍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계첩 마지막 부분에는 '태정3년8월… 수지제자각경(覺慶)… 승계법서헌대선사 지공'(고려 충숙왕 13년(태정3년)에 지공스님이 각경스님에게 계를 준 것을 증명)이라고 새겨져 있어 지공스님이 고려불교에 끼친 영향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또 지공과 각경의 이름이 금자사경체와는 다른 별체(別體)로 새겨져 있어 지공의 친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현재 무생계첩으로 호림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처 미상의 3개첩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호림본은 수계자가 결실돼 있고, 중앙박물관 소장본은 지공이 나옹에게 수계한 것이나 앞부분이 훼손돼 있으며, 소장처 미상의 1첩은 지공이 묘덕(妙德)이란 여신도에게 수계한 것이어서, 이 계첩은 지공의 가장 완전한 계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께 계첩 앞부분의 변상도는 매우 섬세하게 그려져 있었으며, 계첩을 넣었던 비단 주머니는 청·황·적·백·감청 등 오색의 비단천 조각을 일정한 크기로 기운 것으로, 오색을 상징으로 하는 밀교가 고려불교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자료여서 주목을 끈다.

홍윤식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지공스님이 1362년(중국 원나라 시대) 고려에 들어와 2년7개월여동안 활동했음에 비춰볼 때 계첩은 원나라와 왕성한 불교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석으로 광배가 장식된 금동여래입상은 불교미술사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정양모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광배에 보석이 장엄된 불상은 티벳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상이 발견된 황토흙으로 빚은 진단구는 지금까지 불탑 밑에만 조성돼 온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법당에서는 처음 발견됨으로써 불교건축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진단구는 땅의 기단부인 기소(基所)를 튼튼하게 해달라는 종교적 염원이 실린 장엄구다.

범하스님은 "이번에 발표된 유물들은 일정기간 보존처리를 거쳤으나, 앞으로 완벽한 보존처리 및 학계의 가치평가를 거쳐 문화재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이들에 대한 논문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명우 기자



계첩과 주머니 금은니(金銀泥)로 새겨진 계첩. 계첩주머니는 청·적·황·백·감청의 오색 비단천 조각을 일정한 크기로 기웠으며, 비단에는 화문(花文)이 수놓아져 있다.



투각화염광배문 불꽃 모양의 광배조각으로 통일신라시대 불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금동여래입상과 함께 출토됐다.



금동여래입상 광배에 보석이 장엄된 통일신라시대 불상. 보석장엄불상은 티벳 외엔 없는 국보급이다.



금동범종 고려시대 범종으로 사명대사가 해인사에 머물때 자신의 방에 두고 아끼던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칠보봉황촛대 조선왕실이 청나라에서 받은 선물을 해인사에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보살 수계 대법회 ◈

- 미얀마 최고승(세이다우 대승정) 큰스님 초청

■ 일시 : 양력 4월 13일(일요일)
(음)3월 7일(일요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동두천 영탑사

수계식은 미얀마 최고승 세이다우 대승정께서 불자님께 직접 연비하여 드리며 수계증과 기념 사진 촬영이 허용 됩니다.
평생 한번 보기만 하여도 삼세의 업장이 소멸되고 현세의 서원이 굳건히 일어 난다는 이 광명의 자리에 신심 깊으신 불자님께서 동참 하시어 소원기도 원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주소, 이름, 나이)
- 문의전화 (0351) 867-4131 · 4700
팩스 867-4132
- 수계동참비 : 1인 3만원
- 신청접수는 : 4월 10일까지 입니다.

※ 각 사암 주지 스님께서 동참하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안내 1호 - 의정부 전철역 앞 대형버스 2대 오전 7시부터 운행합니다.
※ 차량안내 2호 - 동두천 기차역 앞 셔틀버스 2대 오전 7시부터 운행합니다.

불기 2541년
동두천 왕방산 탑동 영탑사

법 회 안 내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공부하는 모임인 진여회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3월부터 새로운 시간으로 기초교리와 금강경, 법화경, 수지침 등을 강의합니다. 이에 뜻을 두신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일요 법회 3월 9일 일요일 개강
천수경 강의(3개월 과정)낮 12시30분부터 100분간
강의료, 교재대 무료

수지침 강의 3월 9일 일요일 개강
매 일요일 낮 2시 30분부터 100분간
3개월간 집중 주입식 강의

금요 법회 법화경 강의
매 금요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토요 법회 금강경강의
매 토요일 낮 3시부터 5시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진 여 회 반야정사
관악구 신림8동 564-15
전화 : 02)852-2596/8 FAX : 02)859-0188

대 원 불 교 대 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 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7년 3월 29日 까지

■ 교 과 목 :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종사상사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전개설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일교사상	법화사상	정토사상	
2학년	1학기	의식이론	반야사상	포교방법론	불교미술	유식철학	
	2학기	의식실기	불교학특강	불교복지론	불교상담학	원전강독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교학품(敎學品) ①

唯說何爲痴 돌재하위매
蜫謀雖蠢類 옹라봉두류
隱弊以不淨 은폐이부정
迷惑計爲身 미혹계위신

기막히고나 어찌 잠들어 있는가
벌 소라고동 굼벵이 따위는
더러운 업으로 몸을 감쌌으니
미혹으로 제 몸을 삼았구나

焉有被斫創 언유피작창
心如嬰疾痛 심여영질통
溝于衆困難 구우중액난
亡反爲用眠 이반위용면

어찌 찔리고 베이고 상처 받으랴만
마음은 마치 큰 병에 걸린듯 아플텐데
갖가지 액난을 만났음에도
도리어 깊은 잠에 빠져있구나

思而不放逸 사이불방일
爲仁學仁迹 위인학인적
從是無有憂 종시무유우
常念自滅意 상념자멸의

깊이 생각해 방일하지 않으리라
법다운 행을 잘 닦아서
배우고 외워 범하지 말라
도의 길을 가면 근심이 없으니
태어나는 세상마다 편안하리라

愍學愼身 민학섭신
常愼思言 상신사언
是到不死 시도불사
行滅得安 행멸득안

배움에 한눈팔지 말고 몸을 잘지키며
항상 신중히 생각하고 신중히 말하면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
행업이 멸하여 안락에 들리라

非務勿學 비무물학
是務宜行 시무의행
已知何念 이지가념
則漏得滅 즉루득멸

힘쓰지 않아야 할것을 배우지 말고
힘써야 할 것은 마땅히 행하라
생각할 바를 이미 안다면(정념을 알아 마치면)
곧 번뇌는 사라지리라

見法利身 견법이신
夫到善方 부도선방

"배울게 없다하여 스스로 방자하면 道 줄어들 뿐 집착 떨어지지 않는다"

어짐을 일삼고 어짐을 배우면
근심걱정 없어지리니
생각 생각에 걸림 없게하라

正見學務增 정견학무증
是爲世間明 시위세간명
所生福千倍 소생복천배
終不墮惡道 종불타악도

바른 지견 힘써 공부 더하면
이것이 세간의 밝음이 되니
지은 복은 천곱이 되고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莫學小道 막학소도
以信邪見 이신사견
莫習放逸 막습방탕
令增欲意 영증욕의

하찮은 도를 배워서는
그로써 삿된 소견 믿으려 말라
방탕을 몸에 익혀서
욕심이 늘어나도록 하지말라

善修法行 선수법행
學誦莫犯 학송막범
行道無憂 행도무우
世世常安 세세상안

知利健行 지리건행
是謂賢明 시위현명

법을 보아 이 몸 다스리면
무릇 바른 처소에 이르게 되나니
이익됨을 알아 꿋꿋이 행하면
이를 일러 현명하다 한다

起覺義者 기각의자
學滅以周 학멸이고
着滅自恣 착멸자자
損而不異 손이부흥

깨달았다는 생각 일으키어
더 배울게 없다하여 굳어지고
집착이 사라졌네 스스로 방자하면
도는 줄어들뿐 떨쳐지지 않는다

是向以强 시향이강
是學尊中 시학득중
從是解義 종시해의
宜憶念行 의억념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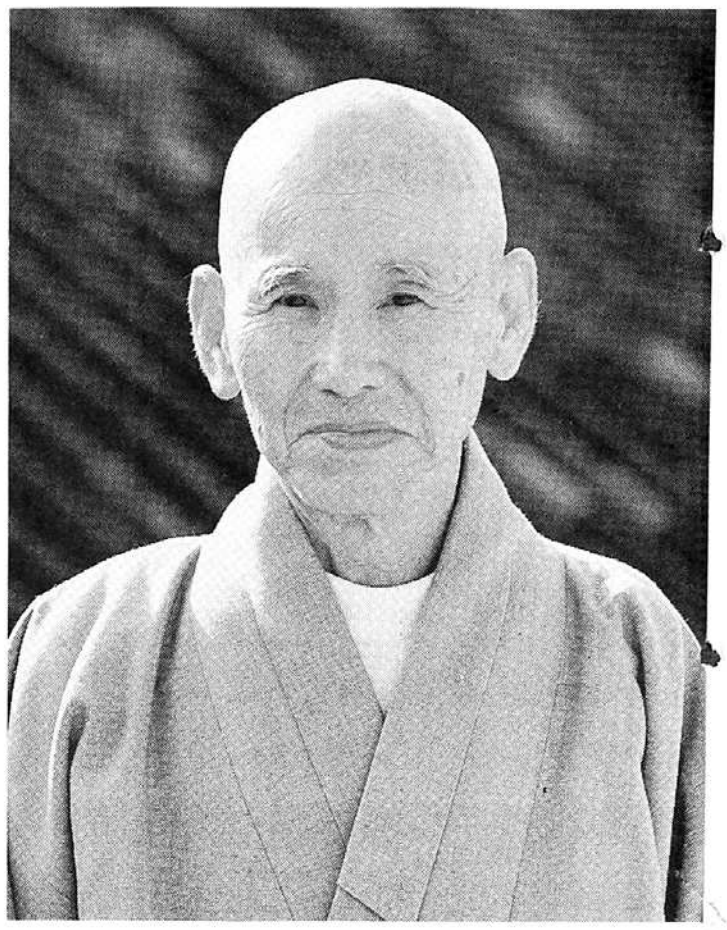
바르게 나아가되 굳세고
바르게 배우되 중도에 들면
그로부터 바른 이치 알게되니
마땅히 잘 기억해 행해야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욕심에 속아 자신만 위하면

호명스님 〈통도사 한주〉



· 1914년 서울 生
· 1939년 포응스님을 은사로 출가
· 해인사 · 통도사 강원 졸업
· 진주 연화사 주지 역임
· 1987년이후 통도사 시탑전에 주석

"다 놔 버릴때 다 가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우주 향해 열려있다면 우주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오랜만에 비가 내려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비라 그런지 자연과 하나로 흘러가는 우리 인생살이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시사철 나와 자연이 하나라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니 오늘이라고 다를 것은 없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비가 오니 내가 22년동안 머물렀던 천성산 조계암에서 밭농사짓던 때가 생각나는군요. 그 곳에서 밥짓고 농사지어 신도들과 나누어 먹으며 많은 공부를 했지요. 공부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농사짓든 무얼하든 본인 자세만 잘 되어 있으면 처처에서 공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51세부터 73세까지 조계암에 있으면서 눈만 뜨면 천여평되는 밭에 시금치, 배추 등을 심고 가꾸었는데 수확물이 나오면 신도들에게 나누어 주곤 했지요. 주말에 신도들이 오면 밭에서 뽑은 배추를 20~30포기씩 묶어주던 재미가 좋았어요. 그때 절실하게 배운 것은 '나 혼자만 살아서 될게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심어서 이웃과 나눠먹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살았죠. 그렇게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어 나와 남의 경계가 무너져 버리고 다른 존재에 대한 배타심이 없어지더군요. 누구를 보더라도 아픈 이가 있으면 위로하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어지고 얼굴인상도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됐죠. 그것은 바로 더불어 사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농사짓는 일만큼 나와 자연, 나와 우주, 나와 이웃이 하나라는 진리를 절실하게 깨우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요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안타까워 하는데 그게 다 나와 남을 따로 보고, 더불어 사는 삶의 참맛을 모르는 까닭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속아서 자신만 잘 살려고 하니 안되는 노릇이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법을 수행해 나간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오게 되고 그곳에 바로 극락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나는 25세때 폐도 안좋고 위장병도 겹치고 해서 금강산에 수양하러 들어갔습니다. 원래 우리집이 잘 살다가 망했는데 장남인 내가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심적 부담이 많아 그게 발병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한 일년 기도할 생각으로 내금강에 있는 장안사부근의 토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불교의 정수(精髓)〉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불서를 보니까 그동안의 내 생활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연히 알게 됐습니다. 또 〈반야심경〉을 읽었을때 내가 지금처럼 살다가는 돈 아니라 세상 것을 다 얻어도 만족한 삶은 못 살겠구나 느껴져서 출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년을 못채우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아무래도 절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자식 몸이 워낙 약하니까 몸만 나으면 된다는 생각에 허락하셨지요. 그길로 서울 도봉산 원통사로 들어갔고 26세때 구례 화엄사의 포응스님을 만나 출가를 했습니다. 유학자이신 아버지에게는 수양갔다고 둘러댔는데 나중에 아시고는 남자로 태어나서 유학을 공부해야지 그런걸 배워서 뭐하느냐고 나무라시더군요.

남을 욕하고 원망하기보다 내탓으로 돌려 남을 받아 들이면 늘 만족한 삶 살게 됩니다

출가하고나서 이제 중이 되었으니 일등가는 중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아픈 중에도 철저히 파고들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 여드레 정도의 단식을 30여 차례나 했습니다. 단식은 몸 속의 세포를 바꾸어 놓기 때문에 단식기도를 여러번 하다보니 병도 낫고 옹졸했던 마음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그전에 나를 알던 사람이 지금의 나를 보면 딴사람이라고 할만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까 마음도 바로 잡혀지고 마음공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 공부의 방향을 일러볼테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에 '색즉시공(色卽是空)'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다 놓아버리라는 말입니다. 자기 의식으로 살려고 하지말고 자연에 맡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몰라요. 이러니 저러니 알고 사는 것 같지만 알고 사는건 하나도 없어요. 마치 바둑두는 사람이 상대의 바둑돌이 어디에 놓일지는 모르고 그 놓아진 돌에 대해서만 대처를 해 나가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 진리를 바로 알았을 때 자기의 생각이 없어지고 자연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겠다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죠. 그러한 방향으로 공부해 들어가면 결국은 모든 것을 쉬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억년을 내려오면서 '나'라는 욕심에 눌리어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뭐든지 '내것' '나 잘먹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다 놓기가 어려워집니다.

부처님말씀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책이 내 안에 들어있는데 욕심의 장막에 가리워져, 모르고 있을 뿐 간단한 것입니다. 나와 네가 다르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다 쉬는 것, 다 놓아 버리는 것'으로 잡아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바둑돌, 즉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꾸준히 그렇게 살다보면 내가 살려는 생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죠. 바르게 살다보면 잘 사는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바

사주학 핵심비결
송월스님 著

운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易書!

/화/제/의/신/간/
운명의 카운트 - 다운 시대가 왔다



신국판/값2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를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로써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길흉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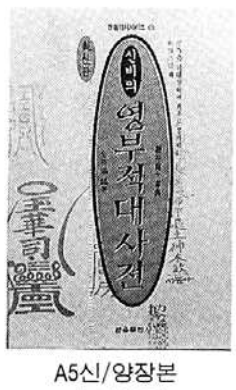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이책을 펼쳐 보십시오.

부적을 집대성하여 최초로 공개하는 비밀스런 책입니다. 당신에게 요긴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선현들의 예지를 본받아 생활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가치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A5신/양장본
/35,000원

관음출판사
전화 : 921-8434
팩스 : 929-3470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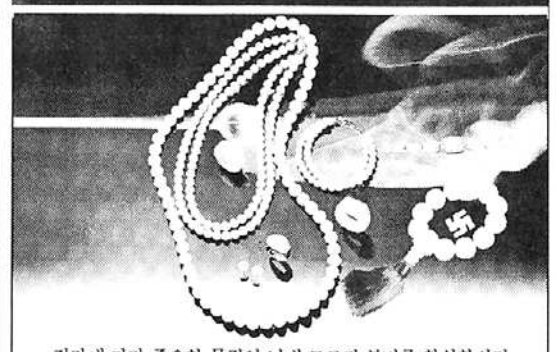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뇌내 모르핀 분비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짜릿짜릿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내몸-부처님도량-이 가람을 청정하게 가꿉시다 (단전호흡 효과)
★ 혈액순환을 도와 모든 성인병의 근원을 제거한다. (체내노폐물 제거)
★ 현대인의 불안, 초조, 신경질, 홧병 또는 노화방지에… (뇌내 모르핀 활성화)
★ 장타력, 집중력, 골프머리가 잡혀 갑니다 (조금의 차가 1타를 이깁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포도자기 포이불 金賞 수상
미국 제10회 국제발명품전시박람회

* 매트의 효능은 옥침대를 대신합니다.
* 세계 유일의 진옥(眞玉)제품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합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추무비내에 진옥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본점 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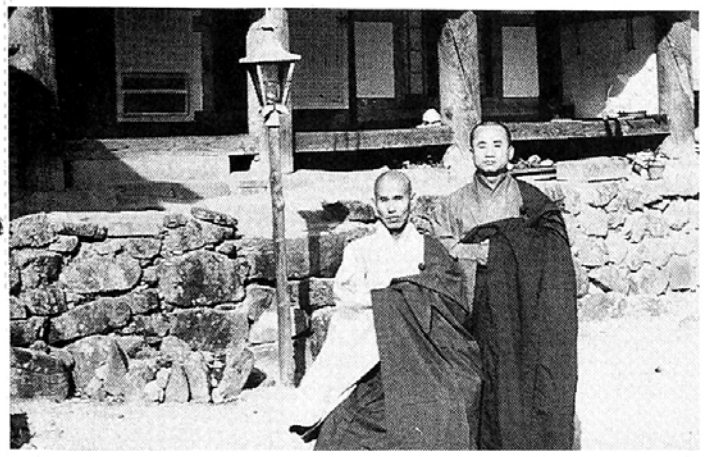
玉山家®
777-0105 (우편판매)

큰 스님 수행한담

극락 멀기만 합니다"

"한국불교의 뿌리 튼튼히 하려면 貧道지키는 수행자 많아야 합니다 필요이상 가졌을때 공부 힘들어져요"

자기만 내세우지말고 자연과 하나돼야 "고통과 절망마저도 공부방편 삼으세요"



◇조계암 주석시절 도훈(안적암 · 오른쪽)스님과 함께.

언젠가 내원사의 성불암 뒤에 성수스님이 지어놓은 조그마한 토굴에 들어가 지낸 적이 있습니다. 방하나에 유리창을 내놓고 혼자서 밥 끓여먹고 살면서 '하아! 이세상은 자기 마음대로만 살아선 안되겠다'라는 생각을 확연히 하게 되었지요. 그곳에서 한겨울을 났는데 그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와 도토리가 많이 떨어졌어요. 눈이 한자쯤 쌓였는데 어느날 아침 자고 일어나니 부스럭 부스럭 소리가 나더군요. 인기척이 없는 곳인데 소리가 나니 이상해 뭔가 하고 창으로 가만히 내다보았더니 멧돼지가 기여올라오는 게 보이더군요. 후각이 좋으니 코로 눈을 후벼파며 새끼를 포함해서 모두 아홉 마리의 멧돼지가 토굴주변으로 다가오는데 가관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으니 도토리열매를 까먹는 소리가 어그적 어그적 나더군요. 한참 보고 있다가 왠만큼 먹었다싶어 '한번 놀려줘야지'싶어 소리를 콰악 질렀더니 쏜살같이 달아납디다. 조금 있으니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사람들이 오더군요.

젊은 사람들에게 산중에 조그만 토굴하나 해 놓고 정말 가 있고 싶을땐 자연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보라고 권하곤 합니다. 그 생활에서 무슨 욕심이 있고 무슨 욕할게 있겠습니까.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다 즐기게 되지요. 그렇게 다 놔 버린 사람에게는 지진이 나도 마음은 극락에 있는 것입니다.

60년 수행생활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우리불교의 뿌리를 튼튼히 하려면 모든 이의 모범이 되는 우리 스님네의 자세가 올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뒷모습 하나에서도 선(禪)의 향기가 풍겨나 다시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참된 수행자가 많아야 합니다. 절 불사만 크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많이 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호칭이 큰스님이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이 자신을 칭할 때 '빈도(貧道)'라고 하는데 그 빈도의 뜻을 바로새겨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중이 잘 먹으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면 안되거든요. 그저 배 안 고프면 되고 안 추우면 되는 것이지 필요이상의 것을 가지고 위세를 부리는 건 진정한 공부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인간은 간이 맞아야 한다'라는 말을 나는 곧잘 합니다. 간이 맞다는 것은 격이 맞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간이라는 말이 수월한 것 같지만 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깨쳐도 간이 안맞으면 안됩니다. 머리깎은 사람이 머리 긴 사람처럼 살면 간이 안맞는 거지요. 간이 맞는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재가나 승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격에 맞는 행동과 마음으로 살고 주부는 주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농부는 농부대로, 상인은 상인대로 격에 맞는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戒), 정(定), 혜(慧)를 잘 지키는 생활가운데 탐 · 진 · 치 삼독을 여의고 각자 처해진 상황과 조건에서 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열심히 정진하기를 당부합니다.

르게 산다는 것이 다 놓아 버리는 것이고, 다 놓아 버린다는 것은 다 받아들이는데 있습니다. 누가 내 뺨을 때리거나 사고를 당해도 불평불만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열중하면 다른 것은 붙을 자리가 없어요. 어떠한 경계가 오더라도 조금의 어려움도 느끼지 않게되고 아픈 그 순간에 맬 것은 매고 견딜 것은 견디고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가, 저놈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하는 딴 생각을 붙이니 불행한 것입니다. 어렵고 절망적인 일이 닥치더라도 인생에는 이런 일도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공부하려 한다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일 남을 '나쁜 놈'하고 욕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냈다면 그 말이나 마음이 상대방에게 가기보다 내 마음에 먼저 닿기 때문에 내가 욕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남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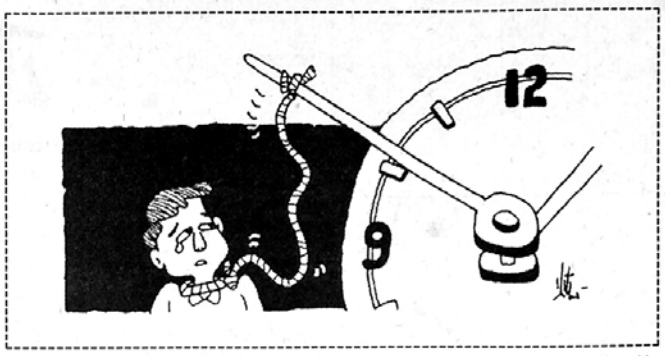
원당하는 마음을 접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월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있어 벌어진 일이니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키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 나간다면 공부에 진척이 생기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로부터 사회가 있다는 선정하는 마음과 계를 지키는 마음이 함께 내 마음속에 들어있게 되니 원망하는 마음이 저절로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가나 승가는 그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머리깎은 이유는 본성을 밝히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깊이 있게 파고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궁구해야 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 수밖에 없죠. 또한 의식구조는 '너와 나는 같은 인간이다', '이 몸뚱이가 바로 소우주(小宇宙)다', '오른손이 남편이면 왼손은 부인이다'하고 내 한몸과 마음에 우주 삼라만상을 축소시킬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이 수월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중심을 내게로 돌리는 힘이 생기면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없어져 만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극락은 없어요. 내 마음이 우주를 향해 열려 있다면 우주는 내 안으로 들어와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공부하면서는 여러 가지 욕심즉, 욕망을 이겨나가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욕망들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불법이 아니고는 안되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야심경〉에도 좋은게 있으면 나쁜게 있고 사는 것이 있으면 죽는 것이 있고 이 순간에도 나고 죽는다는 것을 잘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생을 살다 죽으며 울고 불고 하지만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참뜻을 안다면 울 일이 아닙니다. 의당히 변화해 가는게 인생인데 뭐 그리 답답할게 있겠습니까. 이래도 한세상, 저래도 한세상인데 나 혼자만을 위한 삶보다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고 전체를 감싸안으며 보람있게 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는 법이있었는지 멧돼지들을 쫓아보내고 나니 들이닥쳤단 말입니다. 몰이꾼들이 멧돼지를 몰아오다 놓쳤는지 "스님, 여기 멧돼지 안 왔습니까?" 하길래 모르겠다고 대답했더니 다른 길로 가더군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야말로 서로서로 구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그 당시도 느꼈습니다.

요즘도 나는 선방에 여럿이 앉아 있을 때면 혼자 토굴에 가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중이라면 한 번씩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너무 오랫동안 토굴에 머무는 것은 물의 흐름이 막혀 고이는 것과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인연이나 여건이 맞아서 자연스럽게 하는 토굴생활이어야지 억지로 만들어 해서는 참다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여건이 맞아서 토굴에서 살면 뭔가 느껴지는게 있고 멧돼지라도 나를 찾아오게 혼자 토굴에서 지내다 보면 의롭다는 생각도 다 떨어지고 우주와 하나되어 호흡하는 기쁨을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107

김 용 운

불교와 수학 ①

들어가는 말

이 글의 시작에 앞서 철학, 과학(수학), 종교, 특히 불교의 의미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B · 러셀은 "철학이란 신학과 과학의 중간 영역의 학문"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여기서 말하는 신학(神學)이란 유태 · 기독교에서의 신학이며 그것은 처음부터 신의존재, 절대성을 전제로하여 이미 수립된 교리를 합리화하는 설교론(說敎論)적 입장이다.

철학은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근본적인 체계를 세우는 일이며 그 체계의 출발점을 찾는 일이 핵심적 작업이다. 그 좋은 보기가 있다. 희랍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타레스는 물을, 피타고라스는 수를 근원적인 것으로 삼았다. 또 근대과학의 창시자이자 철학자 데카르트는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 학교, 사회로부터 배운 것들이 허상인가? 아니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누

불교는 철학·과학 포함한 합리적 종교
실험·관찰보다 사유적인 수학과 비슷

군가의 악마적인 힘에 의해 전개된 것인가?' 하는 의심을 했었다. 절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확고한 사실로부터 생각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절대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의심해도 "자신이 여기서 의심(생각)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철학적인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객관화된 것이다.

종교는 죽음의 불안에서 시작된다. 철학적인 "생각한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아 있다"는 것과 언젠가는 "죽는다"는 자각에서 출발하고 그 의미를 묻고 궁극적으로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경지, 곧 "마음이 편해지고 살아 있는 보람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문제에 관해 과학과 종교는 그 출발점이 다르다. 단순한 생물적인 "생사"의 문제만이라면 과학의 대상이다. 과학은 생명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 어떤 개인의 주관도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오직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으로만 설명된다.

생명은 영원한 미래에서 나에게 전해지며 또한 나로부터 구원의 미래에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먼 과거와 미래에 있는 생명 흐름의 결합점에 있는 존재이다.

종교는 이 전 생명의 흐름 속에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생명의 접합점을 의식하는 일이다. 따라서 철학과 과학이 생명체의 외부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것이라면 종교는 그 속으로 들어가 그 의미를 묻는 작업이다.

그러나 불교는 B · 러셀이 말하는 신학적 태도보다는 '과학과 철학'을 내포하는 합리적 태도로 일관한다. 어떤 대상도 절대화하지는 않으며 합리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기에 불교는 처음부터 과학 탐구와 같은 태도로 사회, 자연의 법칙성에도 큰 관심을 갖는다. 수학이 여타의 과학과 다른 점은 실험, 관찰이 없으며 사유세계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합리적 태도는 과학 가운데서도 수학에 가깝다. 기독교의 역사가 과학과의 대결 속에서 전개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불교와 과학(수학)은 전혀 충돌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세상은 시간적으로는 시작도 끝도 없다. 칸트(I.Kant)는 '순수이성비판'에서 시간의 시작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명제는 어느 쪽이나 이율배반이 되며 따라서 이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음을 선언하고, 과학과 철학의 영역이 다름을 명시한다.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언을 하지 않았다. 이점에서도 불교는 과학적이다. 반면에 기독교는 신의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한다.

필자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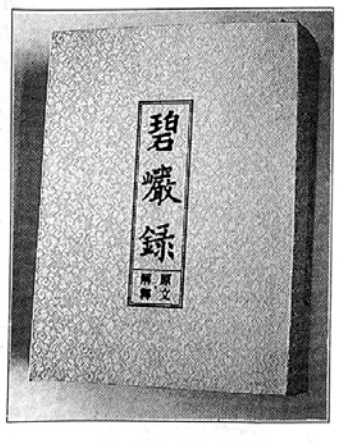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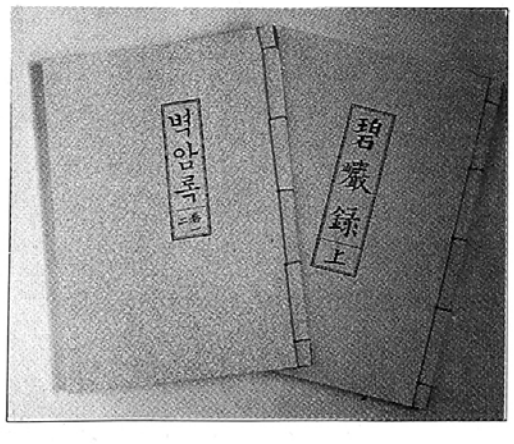
· 1927년 日 도쿄 生
· 日 와세다대 졸업
· 美 어번대 석사
· 67년 加 앨버터대학 이학박사
· 日 고베대 · 도쿄대 객원교수
· 現 한양대 명예교수, 수학문화연구소장, 현대불교신문 논설위원
· 저서 〈한국 수학사〉 등 다수

—禪書의 白眉, 宗門의 寶庫

碧巖錄 譯解

일우스님이 생존시 현토(懸吐)하시고
淨圓스님이 한자, 한획 혼을 기울여
필사와 역해하신 것을 고급한지에
담아 낸 소장가치가 높은 벽암록 완결판!





碧巖錄
:중국 宋나라의 원오(圓悟) 설두(雪竇)선사가 지은 송고집(頌古集)을 評唱한 선수행의 뛰어난 지침서.
10권. 碧巖集





• 본서는 승속을 막론하고, 선에 뜻이 있는 이들을 위하여 原文에는 친절하고 철저하게 토를 달고, 역해에는 번역과 함께 해설을 하여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나 술어 故事들도 따로 색인하지 않고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본문에서 처리를 하여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

• 「벽암록 역해」를 보지 않고 벽암록의 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며 벽암록의 이해없이 하는 참선은 마치 돌을 갈아 거울을 만들려는 것처럼 바른 선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 달마가 불심천자 양무제를 뿌리치고 양자강을 건너 소림사로 간 까닭을 아십니까?

• 본서와 인연 맺는 분 임제의 「할」소리를 한 번은 들을 수 있고 덕산의 「방망이」한대 쯤은 얻어 맞을 수 있습니다.

● 고급한지, 수제본, 케이스入 ● 정가 330,000원

3월중 출간예정

先주문시 20% 할인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대흥기획 서울 : 종로구 수송동 46-18 (수성빌딩 101호)
전화:738-6270, 735-7202 팩스:733-1016

고은 불교대하소설



요즘의 대해는 더욱이 인담의 돌래에서 갈등고 있는 셈이다. 하루내내 인담의 입선시간을 그대로 따르거나 인담이 하는 일을 거들거나 한두마디 말 상대가 되는 것이다.

그는 본디 두 다리를 꺾어 가부좌로 앉아있는 일 때문에 오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 바는 무욕도의 삶에 무던히 익숙해졌다고 해서 아주 없어져버린 것도 아니었다.

"대해… 그대가 뭔지 수심이 서린 듯하네 그려"라는 인담의 지적은 약하게 쏜 화살이 땅에 박히지 못하고 그냥 놓혀지는 것처럼 슬쩍 그를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해가 그 지적에 바로 대답을 하지도 않았다. 그는 제 두꺼운 손바닥을 부벼 두 손바닥의 굵은 손금 서너 개를 서로 맞부비게 할 따름이었다.

하늘 속의 궁전들

만약 그가 배운 것이 있었다면 제법 그럴사하게시리 '파도를 따라 흐름을 같이 하리라(隨波逐浪)'라는 떠도는 문자로라도 맞받아 버렸을지 모른다. 그러나 대해의 입은 굳이 열릴 생각이 없었다.

그저 무너진 집의 재목들과 기단의 돌, 흙더미를 벙어리가 되어 치우고 있을 따름이었다.

어느새 저녁이었다.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저녁무렵이 오기를 바란다. 그 일이 남의 일일 경우는 더욱 그렇고 제 일일 경우에도 그럴 수 밖에 없다.

무욕도의 수행 가운데서 오후의 작업이나 울력은 병들거나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하는 것 말고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만약 비가 퍼붓는다 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비를 맞고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누가 그렇게 하라는 말 한 마디 없이도 그렇게 해오고 있었다.

아마도 그것은 인담이 이 섬을 개척할 때부터 내려온 일과의 내력인지 모른다.

대해가 이곳에 오기 전 조선 3천리의 산하를 떠돌기 위해서 떠난 수월이 살고 있을 때 "일하기 싫어서 중이 되었는데 더 많은 일에 파묻히는 것이 중노릇일 줄이야" 하고 투덜댄 적이 있었다.

그때 우녀가 그런 수월에게 다그쳤다.

"그럼 중이 일하기 싫어 중이 되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란 말이오?"

"그런 말이 아니라 중이 되어 일하기 싫다는 것은 일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중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오."

"그럼 중이 되어 일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오?"

"그렇소. 중이 되어 일하는 것이 더 어렵소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불교방송의 현안문제에 즈음하여

1.불교방송에 대한 현안문제

90년 5월1일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을 방송기치로 개국된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넓게 전파하기 위해 종단과 한국불교계가 합심해 설립한 불교언론기관입니다.

90년 개국 초기는 불교인의 높은 지지율에 의해 불교적인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적극적인 운영을 기해왔으나 95년 5월 이후부터는 일반 방송사를 따라하는 식의 현상유지 경영운영을 해 기존 불교인의 청취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약 1백15억원 공금횡령 사건은 대부분의 불자로 하여금 무책임한 운영과 또는 귀중한 삼보정재를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정환수 책임철저를 통하여 불교방송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2.지방국 활성화에 대하여

불교방송의 특수성을 살려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기존의 방송사와 경쟁하는 방식 보다 전문화되고 불교적 소양이 깔린 전문인을 양성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불교방송을 청취하는 대상이 불교인이라는 분명하고 고정화된 대상임에도 이들에 대한 지역적 또는 내용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청취자의 수를 증가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역 불교방송의 불자들이 지역의 현안과 지역 불자들의 요구내용을 담은 방송을 원하고 있는 추세에서 지역내용과 무관한 방송 프로그램은 지역 불자들로부터의 무관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3.지방국 활성화에 대한 결의문
(3개 지방국 합의사항)

지방국은

첫째, 불교방송 사태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정상회복을 요구합니다. 또한 총경영진은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지방국의 광고수입은 전액 지방국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방국 광고수입액의 명확한 사용처를 밝혀야 지역 불교인의 참여가 활발해집니다. 지방국의 재정자립과 지역불교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국 몫의 광고수입이 지방국에서 전액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교방송의 97년 예산 재심의와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지방국 설립 및 운영규칙은 지방국의 특수성이나 목적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일방적인 중앙국 중심의 의견입니다. 제3장 제10조 방송편성 및 운행의 2항 중 자체방송 제작비율은 5% 원칙, 본사사장의 승인 절차, 제12조 운영자금 제15조 예산관리 등 지방국의 자율권이 극히 제한된 지방국 운영 내규를 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국의 방송 활성화에 역점을 둘 때 중앙국의 모든 면이 부강해집니다. 지역사정과 무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지역 불교인의 참여를 낮추는 원인입니다. 지역의 중요한 불교내용이 방송운영상에서 누락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지역불교발전을 저해합니다. 또한 가장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에 중앙국 내용이 편중될수록 지방국의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낮아지고 청취율은 저하됩니다. 지방국의 지방 편성시간을 늘리고 청취율 높은 시간대에도 배정바랍니다.

다섯째, 지방국의 이사회 참여는 당연합니다.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회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만들어진 지방국의 3명(운영위원장 사장 외 1명:출자액 6억당 1인)을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며 지방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발전을 기할 수 있으며 형평과 균형에도 맞습니다.

이상의 사항은 지방국의 발전과 지역불교인에게 불교방송의 충분한 혜택을 주기 위한 일련의 충정임을 사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의가 이루어지기까지 부산·광주·대구 3개 지방국이 깊은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불기 2541년 2월20일

부산불교방송 사장 류진수외 임직원 일동
광주불교방송 사장 이상진 외 임직원 일동
대구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이설조, 사장 신법타외 임직원 일동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 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지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 의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부전스님을 모십니다
■위치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미력리 광혜정사 (상화부락)
연락처 0694)52-4279

불미불사
사암의 의부에 모시는 석불, 석탑, 석등(돌)대신, 청동부처님, 청동탑 청동등(청동)으로 조성해 드립니다.
청동불사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 사암의 스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일자를 정해 본인이 직접 찾아 뵙고 원하시는 상호, 도안과 주위 조경 견적까지 상담해 드리겠읍니다.
☎ (0331)282-2931 · (011)211-2931
삐삐 015-8415-2931

좌골신경통·목,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야·七一一·四三七〇
주·五四三·七三〇六
전문시술원
院長 張三洙 압구정역

간경화·정신질환
神病, 病名없는 病, 완치보장
불교 0552-82-8128,8118
사찰 H.P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보은암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포교당안내
■위치 : 대구 달서구
■평수 : 40평 방2칸
연락처 0559)32-9114
32-4845

십만부 돌파!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권 출간!
우학스님 수필·시·소설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053)474-8228
좋은인연 053)475-3707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 광채를 발하는 신비한 반야심경
佛子任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敎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선착순 한정본(품)
●주문 신청방법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雲藏 法師 禪筆 硏究會
☎ 466-2116 (夜)216-0307

행동하는 불교, 실천하는 불교
해동불교산악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산행하며 포교하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도봉산 산행
3월 16일 오전 9시
도봉산역앞에서 출발합니다.
해동불교산악회 협장
사무국 (02)903-8976
372-2254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건 30년이상됐음
▷가격: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포교당하실 분
■위 치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평 수 : 30평 (법당, 방2)
■보증금 : 1,000만원(월세 45만원)
■시설비 : 1,000만원
연락처 (0346)68-6553
015-165-4488

포교원 안내
▶위 치 : 부산 온천동 최요지
▶평 수 : 36평
■보증금 : 1500만원, 월세 60만원
■시설비 : 비품대 가격절충가
연락처 : 051)514-0331~2

원효 연구원 이전
원효연구원이 최근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8-9 화양 빌딩 4층으로 이전했음을알려드립니다.
새전화 : (02)499-0960
원효연구원 이사장 운제 합장


사람을 찾습니다
성명: 김만순(女) 39세
- 97년 2월 26日~27日집을 나감
- 상의는 무스탕잠바, 하의는 츄리닝 신발은 부츠, 안경 착용 체력과 키는 작은편
- 충청 천안지역사찰에 기거예상
※ 위사람을 아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연락처 : 02)495-0234
015-294-3572

귀의 삼보하옵고
하이얀 도화지처럼
맑고 깨끗한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수있도록
제작한 불교그림동화(완색)「깨달음의 세계」(6바라밀)및 단행본「부처님일대기」가 재판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노력하겠습니다.
불교에 관한 출판 (소설, 시, 수필)및 사찰에 필요한 일반 홍보물등을 의뢰하시면 성심 성의껏 기획·제작하여 드리겠습니다.
(제법복사용 단체구입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하나원 TEL.(02)932-6327, 937-5759

특강 '최면요법과 능력개발, 스트레스관리, 잠재력개발, 명상
■ 1회특강 : 3월12일 오전 10시~1시 오후 7시 ~ 10시
■ 주말훈련과정 : 3월15일(토)~16일(일) 토 : 오후 3시 ~ 10시 일 : 오전 10시 ~ 5시 참가비 : 8만원
■ 강 사 : 김택관(조계종 포교사)
정신세계원
종로구 운니동 114(종로3가에서 안국역 중간 운현궁터)
전화 747-7033(代)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 불 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금강산은 부처님 땅이다"

박은순씨 '金剛山圖 연구' 출간

14세기부터 동북아 불교성지
'화엄경 보살주처품'서 지명유래
고려회화·국학자료 등 총정리



"여기(금강산)가 참으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죽어 조선사람이 되어 길이 부처님의 세계를 구경하는 것이 소원이다."(남효온의 〈秋江集〉중에서). 1469년 중국 사신인 부사 정동이 금강산에 갔을 때 일행중 한 사람이 보덕굴 앞 연못인 벽하담에 빠져 죽으며 한 말로서, 당시 중국인들 사이에 금강산을 이상적인 불국토로 여기는 신앙이 퍼져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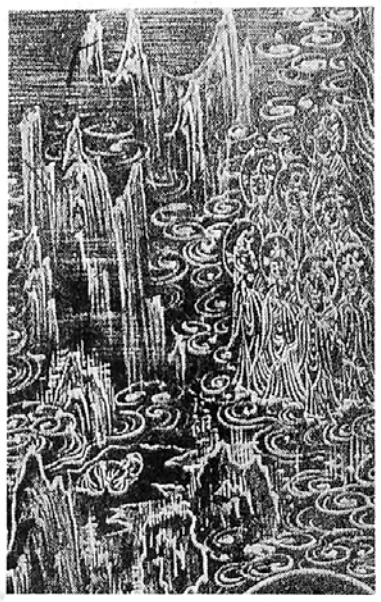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성지, '그리운 금강산'을 조상이 남긴 그림과 문헌으로 살펴본 연구서가 처음으로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미국 뉴욕주립대 객원연구원인 박은순씨(39)는 고려말부터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선조들이 그림으로 가장 많이 남긴 '금강산도(金剛山圖)'를 중심으로 전통회화와 국학 제분야의 연구를 수렴한 책 〈금강산도 연구〉(일지사 刊)를 최근 펴냈다.

〈금강산도〉를 통해 우리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이 책은 '금강산'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변천, 불교신앙과 관조의 대상으로서의 의미와 역할, 금강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과 미술의 성격과 특징 및 상호관련성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개골(皆骨) 풍악(楓嶽) 봉래(蓬萊) 등 금강산에 대한 다양한 명칭을 살펴본 박씨는 이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금강산이라는 이름은 고려말 이곳이 불교성지로 인식되면서 정착된 이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강'을 비롯한 열반(涅槃) 기달(枳怛) 중향성(衆香城) 등 불교적 명칭이 대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에 따르면 금강산이란 이름은 〈화엄경〉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서 유래되었다.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란 곳이 있는데 옛부터 여러 보살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다. 지금은 법기(法起=담무갈)라는 보살이 있어 1만2천 권속과 함께 항상 머무르며 설법하고 있다"는 것. 이밖에 '열반산'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속칭이었으며, '중향성'은 담무갈(曇無竭)보살이 거주하는 곳, '기달산'은 〈화엄경〉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바다에 떠있는 섬'이란 뜻을 담고 있다.

금강산 그림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307년 노영(魯英)이 그린 '담무갈보살예배도.' 고려 태조가 금강산에 가서 현신한 담무갈보살을 보고 예배하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후 조선후기까지 그려진 금강산에 대한 정통회화만도 2백여점이 넘는다.



◇ '담무갈보살 현신도(現身圖).' 금강산에 대한 정통회화는 2백여점이 넘는다.

14세기부터 지금까지 구원의 성지가 된 금강산, 이 책은 금강산에 대한 불교신앙의 역사를 증명해 준다는 점에서 교계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출판소식

"일본불교는 생활문화의 일부분"

철학과 현실사, '종교를 알아야…' 펴내

불교등 전통종교를 통해 일본의 문화를 들여다 본 책이 나왔다.

덕성여대 이상경교수(일어일문)가 번역한 〈종교를 알아야 일본을 본다〉(고이케 나가유키 저, 철학과현실사 刊)는 일본 고유의 종교가 어떤 것이며 불교는 일본에 어떤식으로 받아들여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일본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었는가를 실생활과 결부시켜 쓴 일본 연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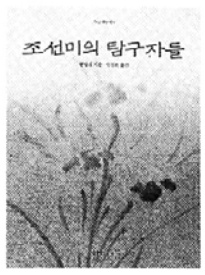
특히 역사의 흐름을 통해 '나라 불교' '헤이안 불교' 등이 당시의 권력자들과 관련을 맺으면서 현실속에 뿌리내리는 과정을 잘 묘사했다.

역자인 이상경교수는 "일본에 있어서의 종교는 이미 생활문화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이 한국과는 다른 점"이라고 지적한다. 태어나면 산사(山寺)에 가서 장래를 빌고, 기회가 닿을때마다 절이나 신사에 참배하며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죽으면 절에서 화장(火葬)이 된다는 설명이다.

'모독' '한국미의 탐구' 등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는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읽어야할 유익한 책 34종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소년 권장도서는 〈모독〉(박완서 저,학고재), 〈한국미의 탐구〉(김원용 저,열화당),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이동주 저, 시공사),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 2〉(주강현 저, 한겨레신문사), 〈그림없는 미술관〉(안규철 저, 열화당), 〈역사를 위하여〉(강만길 저,한길사), 〈낙엽 한 장만한 바람〉(김은숙 저,교학사) 등으로 문학 역사 철학 예술 등 11개 분야에 이른다.

조선미의 탐구자들 — 한영대 지음



일제하 우리문화재 지킨 사람들 일화

재일교포 미술사학자 한영대씨(58)가 쓴 〈조선미의 탐구자들〉은 일제하에서 한국의 불교문화재등 고미술품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인물들과 그로인해 보존될 수 있었던 문화유산을 소개한 책. 조선미술에 심취해 조국에 등을 돌리기까지 했던 일본의 '민예파' 미술가들, 〈조선미술사〉를 저술한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등 구미출신의 조선미술 애호가 등 일제의 문화약탈에 맞선 사람들의 일화를 그렸다.

특히 △2점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국보 78호와 83호)이 입은 수난사와 △석굴암의 십일면관음보살상 앞에 있던 대리석 소탑의 반출사건, △경천사지10층석탑이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울인 호머 헐버트와 어네스트 베셀의 끈질긴 노력등 불교문화재에 얽힌 사연이 흥미롭다.

〈학고재 1만2천원〉

돌의나라 돌이야기 — 최영주 지음



화제의 책

석불·석탑에 얽힌 사연담은 문화기행서

〈돌의나라 돌이야기〉는 국토의 70%를 차지하는 산, 그 안에 널려진 돌과 바위에 담겨진 사연을 담은 증앙일보 최영주 기자의 이색 문화기행서.

우리 국토에 널린 석탑과 석불·석등, 부도와 비석에 담긴 내력을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유물·유적에 나타난 '돌의 미학'을 통해 고대인의 의식세계를 엿보는 저자는 정림사지 5층탑, 분황사 석탑, 경천사지 10층석탑 등 불탑에서는 '조화와 원융'이라는 선조들의 미의식을 읽는다.

또한 지광국사 현묘탑, 법주사 쌍사자석등, 중원 고구려비, 첨성대, 석굴암, 회암사 태극계단 등 다양한 석조문화재를 통해 돌에 실린 천년의 혼을 더듬는다.

〈맑은소리 6천원〉

새로나온 책









▲보현행원품 강의(무비스님 지음)=모든 불경의 결론이 〈화엄경〉이라면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행원품'이다. 불가사의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되는 보현보살의 행원(行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나와 한 몸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섬기며 공양하라고 설한다. 〈민족사 6천5백원〉

▲옛 그림 감상법(한정희 글·사진)=중국화, 한국화, 일본화의 독자적인 해석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많은 그림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벽화 불화 정형산수 실경산수 초상 인물화 풍속화 화조화 동물화 등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배열, 유행화법과 변천사를 알 수 있게 했다. 〈대원사 3천5백원〉

▲사바세계(김관태 지음)=경남신문 김관태 논설위원의 칼럼집. 1부 '時와 論'은 '경남시론'에, 2부 '여론의 이름으로'는 95년부터 지난해까지 '가고파'란에 쓴 불교적 칼럼을 모았다. 3부 '사람과 사람'에서는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과의 대담 등을 실었다. 〈대원 8천원〉

▲생명공학과 부적(박지명 엮음)=소리(진언)와 형상에너지(부적)가 개인적인 원력에 정립되고 그것에 마음이 집중될 때 평온한 마음으로 명상상태에 들게 되면 정신적인 안정, 질병치료와 건강, 깨달음 등에 이르게 된다. 히말라야명상요가센터 박지명소장이 진언과 부적이 의식수준을 확장하는 수단임을 밝혔다. 〈꺼침의소리 1만8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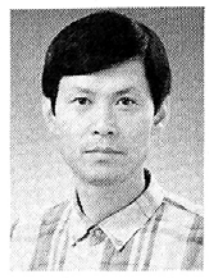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 판 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4	힘든 세상, 道나 닦지	효 림	가 서 원
5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6	삼소굴 소식	명 정	극락선원
7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8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9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 념	장 승
10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 순 용	세 계 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 100선

불교를 찾아서



신 항 섭 〈미술평론가〉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 수학여행으로 수덕사를 다녀온 이후였다. 그로부터 불교 관련 서적을 틈틈이 뒤적였고 나름대로 불교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됐다. 하지만 지식이라고 해야 체계적인 과정을 밟지 않아 그냥 이리저리 꿰어 맞춘 남루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절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지금은 불자가 되어 있다. 어느 자리에서 종교문제가 화제로 떠오르면 그저 한마디 거들게 되는 일도 적지 않다. 지식의 단편들을 주섬주섬 되뇌이면서 불자연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리 뛰어난 식견을 가진 선지식이라고 해도 불교를 한달음에 깨우쳐 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고 보면 이쯤 알아도 저쯤 알아도 불교 교리 자체를 왜곡하는 일은 없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곰곰히 생각해 보면 불교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란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학문적 시각의 범주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과 직면하곤 했다. 불교라는 종교의 진상이 무엇이며, 그 신앙으로서의 형식과 절차는 어떤 의미인 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한마디로 불교는 이런 것이라고 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일목요연한 안내서 같은 것이 없기 때문이었다.

교리·의식·수행 등 궁금증 해소
올바른 신앙생활 길찾기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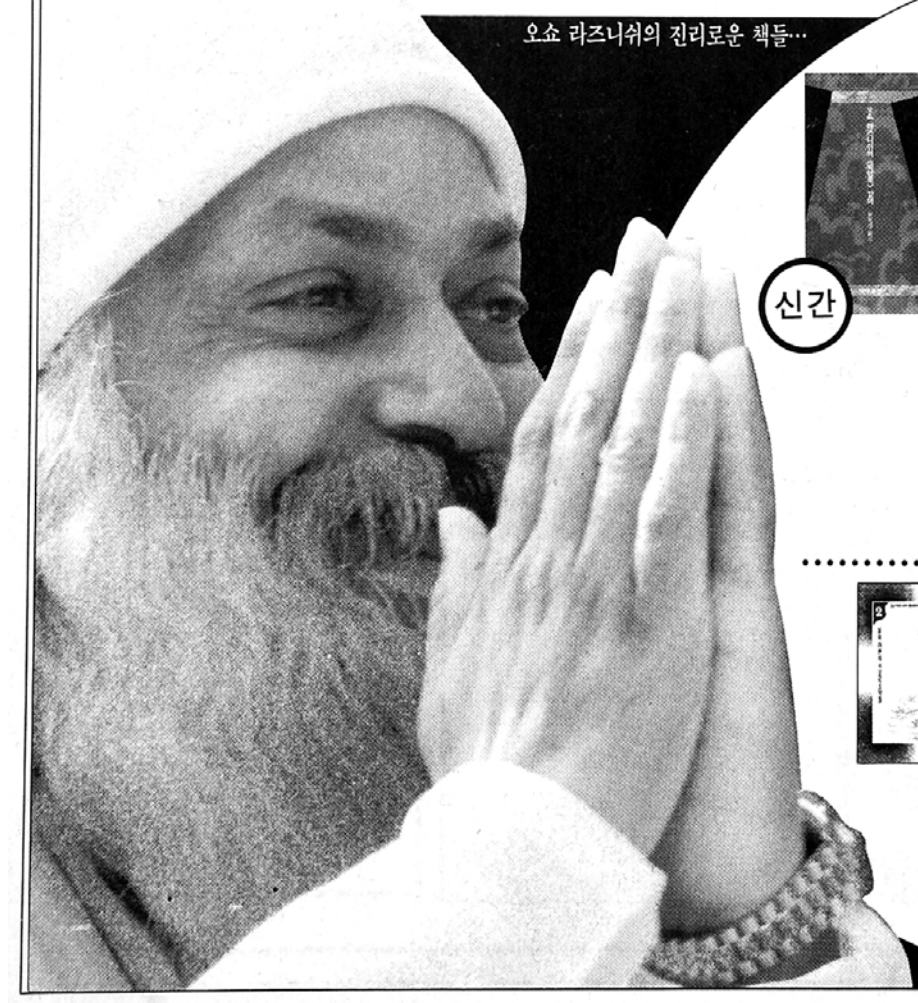
간헐적으로 절간에 다녔지만 누군가 불교에 대해 조목조목 물어왔을 때 스스로가 놀랄만큼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은 예사였다.

그런던중 수년전 석지현스님을 알게됐고 스님이 쓰신 두권의 저서를 선물로 받았다. 그중 〈불교를 찾아서〉(일지사 刊)는 이제까지 내가 알고 싶었던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망라하는 뜻밖의 등불이었다.

적어도 이 책은 불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얀팎의 형상을 개략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길라잡이로서 손색없다. 〈불교를 찾아서〉는 불교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은 물론이요, 나처럼 단편적인 지식을 주워담는데 그치는 어설픈 불자들이 좀더 확실한 자기 모양을 추스린다는 뜻에서라도 한번쯤은 읽어 두어야 할 책이라는 생각이다.

어떤 이는 신행생활을 하는데 지식이 무슨 소용이며, 형식과 절차가 무슨 필요냐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는 그 시작 이래 형식과 절차에 의해 그 존재가 유지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종교란 지식이나 형식 또는 그 절차가 본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지만 말이다.

이 책은 '불교의식의 이해' '부처는 누구인가' '교리' '수행' '신앙' '경전' '역사' 등 크게 7개 항목으로 나뉘어 불교입문자들이 가지는 기초적인 의문에 답하는 세부적인 문항들을 거느린다. 이쯤에서 보면 불교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은 단박에 해소시킬 수 있을만 하다. '불교백과 소사전'이라고 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읽음으로써 불교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려니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올바로 찾아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신간

살아 있는 선(禪)
– 오쇼 라즈니쉬의 〈벽암록〉 강의

성철 스님은 '**벽암록**을 읽으면 모든 알음알이가 딱 끊어진다'고 하였다. 이렇듯 선문제일서로 유명한 **벽암록**, 그중에서도 선가에서 손꼽히는 선문답을 20여 개 골라 어렵고 불분명하기만 했던 선의 세계를 오쇼가 여기에서 명쾌하게 풀어헤친다.

류원장 옮김 / 380쪽 / 값 9,000원



42장경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우주적 농담, 재치 있는 에화를 곁들여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1권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 448쪽, 제2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 440쪽
황광우·이경옥 옮김 / 전2권 / 각권 값 7,500원



말없는 자의 말 (양장본)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과 철학과 신을 비라본 인도의 명상가 오쇼의 생애 마지막 명상록
이경옥·황광우 옮김 / 176쪽 / 값 4,800원

여기, 다시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달마의 벼락 같은 목소리가 있다
옛 선사들의 뇌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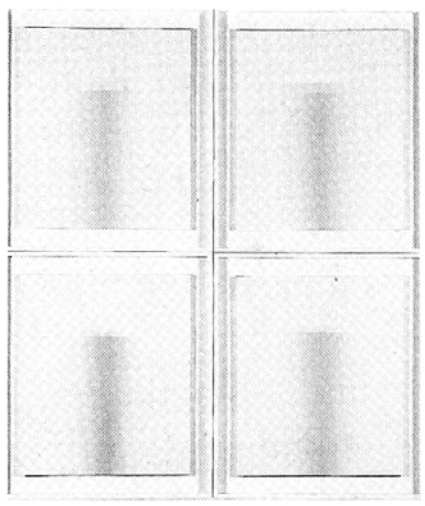
!

TEL : 778-6826~7 FAX : 778-6828 성하출판

제16회 佛美展

오해균씨 '불감' 대상





◇금상을 차지한 김성희씨의 '아미타회상도'(사진 위), 이동엽씨의 '間 무상 935-2'.

금상엔 김성희·이동엽씨
8개분야 269점 응모…122점 입상
운영·심사委 분리 "공정하다"

제16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 오해균씨(61·부산시 강서구 대서2동)의 공예작품 '불감(佛龕 47㎝×46㎝)'이 대상(종정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 조계종 총무원이 발표한 불미전 심사결과 및 입상작 발표에 따르면 금상(총무원장상)에는 '아미타회상도(김성희 작)'와 '間 無常(이동엽 작)'이 각각 선정됐으며 은상(우수상)에는 '신심명(영배스님 작·서예부문)' 등 4점이, 동상에는 '약사여래불(김방집 작·조각부문)' 등 8점이 차지했다.

이번 불미전은 △전통회화 △전통조각 △동양화 △서양화 △공예(전각) 건축 △조각 △서예 △사진 등 8개 분야에서 총 269점이 응모했고 이중 122점이 특선 입선 등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부터 불미전은 기존 운영방식을 바꾸어 예배용(전통)불교미술과 감상용(순수)전통미술로 양분돼 출품분야가 확대됐고 상금도 대폭적으로 올랐으며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분리하는 등 운영에 대폭적인 변혁을 시도해 과거에 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상작 '불감'을 비롯한 122점 입상작들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공평아트센터 1층 전시홀에서 전시된다. 전시기간동안에는 전통국악공연과 전통차무료시음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심사평 모작한계 벗어난 작가정신 아쉬워

운영방식이나 전시의 내용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서인지 응모작이 지난 대회보다 대폭 많아진 것은 불교미술발전을 위해 반가운 현상이다. 무엇보다 불미전이 주목해야 할 작품은 불교정신의 올바른 해석과 창의적인 접근 그리고 기초가 튼튼한 표현역량과 성의 등이 얼만큼 반영되어 있는 가다. 심사기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모작의 한계였다. 특히 예배용 분야에서 옛 명작의 단순한 모작이 과연 오늘의 불미전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거리였다. 전통에 대한 낮은 이해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불미전은 창의성에 기반한 작품의 전시장이지 결코 기술경진대회장이 아니기에 출품자의 투철한 작가정신이 요구된다.

불교미술품은 신심속에 자연스럽게 조형화된 작품이어야 한다. 불자만의 미술이 아닌 국제무대에서도 감동을 주는 작품이 많이 출품돼 대회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심사위원〉 △전통회화: 석정스님 홍윤식 조정우 △전통조각: 권정학 문명대 △서양화: 오경환 서승원 △동양화: 송영방 송수남 △사진: 서명스님 장종기 △서예: 여원구 임창순 △조각: 조승환 △공예(전각) 건축: 최승천 △평론: 윤범모 김상철 박상국

대상 받은 오해균씨

"대표작 남기겠다" 마음의 눈으로 작업



40여년 목각 독학
10월 첫 개인전 예정

"제작하는 내내 깨달음을 얻기위해 고행하시던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일생일대의 대표작을 남기겠다는 일념하에 마음의 눈으로 만들듯 최선을 다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불미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불감'의 작가 오해균씨는 올해 두가지 경사가 겹쳤다. 14회 불미전서 입선, 15회 불미전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마침내 최고상인 대상의 영광을 안았고 오는 10월에는 공평아트센터에서 40년 목각인생을 결산하는 생애 최초의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작품은 완성에 꼬박 3년이 넘게 걸렸을 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다. 단단한 대추나무에 3신불회상도를 역동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한 이번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겉부분 못지않게 속부분 깊이에까지 정교한 각법을 구사한 점이 돋보이며 형상력이 뛰어난 극히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렇다 하게 내세울 스승도 없이 오로지 독학과 잡념으로 목각에 정진해 왔지만 각종 대회에서의 큰 상운(運)이 별로 없다가 이번에 흠뻑을 친 오해균씨. 지난 95년 노동부에 의해 명장(名匠)에 선정될 만큼 뒤늦게야 그 기량을 인정받고 있는데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나만의 독특한 숨결이 살아있는 작품제작에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숙〉

불심시심 〈80〉

머리돌려 멀리 하늘 보다

一下牛城又一年 (일하우성우일년)	우성을 내려온지 또 한 해
峨嵋物色夢依然 (아미물색몽의연)	아미산의 풍경은 꿈에만 아득
遙知象外鎭禪興 (요지상외요선흥)	물상 밖의 참선의 흥 넉넉함 알면서도
肯念塵間重俗緣 (긍념진간중속연)	티끌세상 무거운 세속인연 아쉬워하나
林月散明春葉露 (임월산명춘엽로)	숲의 달 봄 잎의 이슬을 여기 저기 비추고
寺鍾寒度暮山煙 (사종한도모산연)	절 종은 싸늘히 저녁 연기 타고 오네
關河搖落傷懷抱 (관하요락상회포)	국경 저 멀리로 서글퍼하는 회포가 지니
矯首難堪望遠天 (교수난감망원천)	머리 돌려 먼 하늘 바라보기 힘겨워

위 시도 허정대사의 '망향산(望香山)'이라 제한 시이다. 지난 주에도 허정대사가 묘향산의 상운암에서 지은 시를 소개하였다. 거기서는 암자의 정경보다는 그 암자의 주인공 인품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시였다. 이번의 시는 묘향산을 밖에서 바라보는 풍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속세로 내려온 지 한 해가 넘은 스님으로서 고향과도 같은 산사를 그리워하는 시이다. 멀리서 그리는 심정, 멀리 알다(遙知)의 두 글자에서 그리워하는 거리를 짐작케 한다. 물상 밖의 풍족한 참선의 흥이다. 이러한 흥을 잊은 지가 한 해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세속의 무거운 인연에 이끌리는 속정이 일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더욱 산사를 그리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산사의 옛 풍경을 상상하는 것이다.

지금 묘향산에 어우러질 풍경, 봄이 되어 새싹으로 돋는 잎에 달빛이 어리고 이 잎들에 맺은 이슬은 구슬인 양 몽글몽글한데 거기에 이 달빛이 비춘다. 이것을 흩어지는 밝음(散明)이라 하였다. 여기저기서 반짝거리는 빛이다. 밤의 요정 같은 인상이 떠오른다. 저문 산의 아지랑이에 싸여 들려오는 종소리 싸늘히 건너오다(寒度) 하였다. 역시 멀리서 그리워하는 작자의 심경에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리움으로 차있는 회포 상하다는 표현을 빌릴 만큼 그리운 회포이다. 멀리 저 하늘 끝으로 달리는 회포이다. 그러기에 멀리 떨어지다로 표현하였다. 머리 돌려 하늘을 쳐다보기가 어렵다. 속인의 처지에서 보면 고향으로 와서 되려 고향을 그리고 있는 격이다. 그러나 스님으로서는 산사가 어디까지나 고향이다. 미련을 여의는 것이 역시 집착이 없는 수도의 방편일 것 같기도 하지만, 스님 이전의 자연인으로서도 어쩔 수 없이 그리는 것이 자신의 과거인 것이다. 견디기 어려움(難堪)으로 표현한 끝 구의 결론이 소탈한 스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꽃박람회

세계의 꽃잔치 일산서
'꽃과 인간 만남' 5월3일부터
연등축제·승무 등 공연

우리나라와 세계의 온갖 화려하고 진귀한 꽃들이 오는 5월 일산신도시 30만평 호수공원에 모인다. 오는 5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 네덜란드 일본 등 세계 25개국이 참가하는 '97 고양 세계꽃박람회 기간중에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오색연등이 화려하게 수 놓아지는 연등축제도 화려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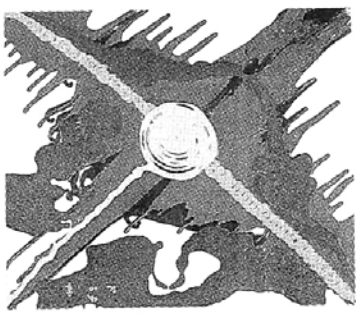
'꽃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꽃박람회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1백여 화훼업체와 국내 1천여 꽃재배농가가 정성스럽게 기른 연꽃 장미 난 선인장 등이 1만 5천평의 야외꽃전시장과 3700여 평의 실내꽃전시관에서 전시된다. 또한 9천여평의 국제조각공원에는 국내외 유명조각가의 작품 30여점이 튤립공원 장미공원과 함께 꾸며진다.

꽃박람회 기간중에 있는 부처님오신날(5월 14일)에 열리는 연등축제에는 오색 연등 점화식, 찬불가 부르기, 승무·바라춤 공연 등 다채로운 불교행사가 펼쳐진다. 저녁 7시부터는 일산신도시에 소재하는 사찰 신도들이 대형 연꽃을 앞세우고 각 사찰까지 제등행진도 펼칠 예정.

이밖에도 희귀연 날리기, 농악대 길놀이, 서커스, 고적퍼레이드, 외발자전거묘기 등과 화환제작 경연대회, 꽃결혼식, 꽃가족 사진촬영대회, 꽃산업발전국제세미나, 꽃여왕 선발대회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 (0344)62-5322

홍미경씨 에너지아트전

"존재의 근원 그림보기"
19~24일 대구 대백갤러리… '건강' 등 40여점



◇홍미경 作 '축복에너지-나'

불교사상을 추상적으로 조형화해 온 홍미경씨가 오는 19~24일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 A관에서 '에너지 아트'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인 에너지를 강렬한 선과 원색으로 표현한 '축복 에너지' 시리즈와 위장 심장 신장 등 인체의 각 부분을 상징화한 '건강시리즈'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홍미경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것을 주관적 논리로 다가가려 하지만 모든 존재의 근원인 에너지의 원질(原質)로 우주 보편의 진리를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한다. 〈숙〉

만해백일장 소래섭씨 '대상'

대한불교청년회 주최 제18회 만해백일장에서 소래섭씨(서울대 3년)의 '아버님께'가 대상(만해상)을 차지했다.

지난 1일 동국대에서 열린 백일장에는 초 중 고 대학일반부 등 총 8백여명이 '봄비' '아버지' '이땅의 부처님' 등을 주제로 문재를 겨룬 가운데 이주희(진선여고 2년)양 등 3명이 장원, 이원주(동대부고 1년)군 등 7명이 우수상, 이송희(이화여대 대학원)씨 등 20명이 장려상을 받았다.

이땅의 부처님
이주희 〈진선여고 2년〉

그래서 더더욱 보고파
그리움이 남는 그 얼굴
언제쯤 한번 뵈올 수 있을까
밤을 새워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더더욱 듣고파
그리움이 남는 그 목소리
밤을 새워 기다려 봅니다

부처님
부처님
아! 드디어 부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 드디어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얼굴 아빠의 목소리

오 여기 계셨군요

부처님
부처님

〈시·시조부문 고등부 장원〉

문화소식

죽림사 괘불 도 유형문화재로

전라남도는 지난 2월27일 문화재위원회의를 열고 나주 죽림사 괘불을 도 유형문화재 제190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죽림사 괘불은 1623년(인조1)에 제작된 것으로 우리나라 현존 40여괘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슬라이드로 보는…' 불교강좌

한국불교문화원(원장 홍무흠)은 3월 11일부터 4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자비의전화 강의실에서 '슬라이드로 보는 불교문화 이해' 강좌를 개최한다.

내용은 △불교의 세계관(3월 11일) △탑의 이해(3월 18일) △불보살의 이해(3월 25일) △불구의 이해(4월 1일). (02)739-8430

二軾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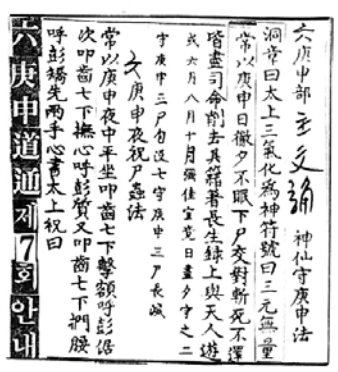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크를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좋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서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심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크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 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요!

※본사는 경남북, 전남북, 충남북 일원등 지방공급의 원활을 기하고자 영업하실 분 또는 대리점하실 분을 모십니다.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二軾實業 佛敎事業部 ☎ (02)467-6044~5 FAX (02)467-6045

丁丑年(六庚申道通) 제 7회 법회 안내

大道人이 되는 육신통(六庚申道通) 대용맹정진 수행기도 법회가 양력 3월 18일(음 2월 10일) 亥시에 입제하여 3월 19일(음2월 11일)밤 亥시에 회향하오니 無爲眞人 일만이천 道人대열에 入門하시기를 바라옵니다.


六庚申道通 제7회 안내
六庚申部 玄文論 神仙守庚申法
洞賓曰太上三氣化爲神符號曰三元無量
常以庚申日徹夕不眠下尸交對斬死不得
陪盡司命削去其籍善長生錄上與天人遊
戊午六月八日十月編住室先日盡夕守之二
守庚申三尸自沒七守庚申三尸長滅
又庚申夜祝尸姦法
常以庚申夜中平坐叩齒七下擊額呼彭俉
次叩齒七下撫心呼彭質又叩齒七下捫腋
呼彭矯先兩手心書太上祝曰

동양철학 지도
1. 음양오행
2. 천문지리
3. 기문둔갑
4. 풍수지리

〈大道眞人이 되는 六庚申 주문〉
입제일 : 1997년 3월 18일(음 2월 10일)밤 10시
해재일 : 1997년 3월 19일(음 2월 11일)밤 해시
■ 1박2일 : 참가비 5만원, 숙식제공
(연회비 60만원-분납가능)

기도처 :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전화 02)821-6622,923-3110
육경신도통회 태일선원장 태일 거일 거사

생명공학과 부적
생명공학의 지혜가 당신의 인생을 바꾼다
박지명 엮음/신국판/값 18,000원


生命工學과 生命공학과 부적 符籍
Mantra and Yantra

"성공을 위한 소리에너지(주문)와 형상에너지(부적)의 신비한 효험!"

인간의 몸에는 수많은 에너지의 선과 흐름이 있으며 그것은 정신의 진화의식 상태로 연결된다.

이 책은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삶의 나쁜 에너지를 방지하고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는 소리와 형상 에너지에 접근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획기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드는 행운의 부적
운담 엮음/신국판/값 12,000원



깨침의소리
전화 : (02)444-3575

거조암 영산전 전면 보수한다

"5백 나한님 1년 휴가"

세계유일 화강암 나한상 보존

10억불사…정부·교계 지원 절실





◇얼굴모습과 자세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뚜렷한 개성을 지닌 영산전 5백26나한상중 일부(왼쪽). 국보 14호 거조암 영산전(오른쪽)이 심각한 훼손으로 전면 보수에 들어갔다.

고려때 보조 지눌스님이 정혜결사를 선언한 유서깊은 고찰 팔공산 거조암(주지 혜해) 영산전(국보 제14호)이 전면 보수에 들어간다. 영산전은 지난 72년 해체보수 당시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하는 등 날림 공사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해 습기가 차고 기둥이 썩는 등 훼손이 심각해져 전면적인 보수가 요구돼 왔다. 현재 해체작업에 들어간 영산전은 연말까지 기둥 일부와 기와교체, 바닥정비, 나한좌대신축 등의 보수와 법당 뒷편에 습기 방지를 위한 석축을 쌓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영산전 보수가 끝나면 설법전과 선방도 차례로 건립한다.

영산전은 부처님 당시 제자들중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5백26 나한을 법계도에 따라 모신 곳으로 거조암 영산전은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조사당과 함께 오로지 4곳이 남아있는 고려목조건물로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영산전은 혜림법사와 법화화상이 건립한 뒤 폐허로 방치돼 있다가 고려때 명나라 대목 진춘근이 중국식 목조건물로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영산전안에 봉안돼 있는 5백26 나한은 세계 유일의 화강암으로 된 석조나한상으로 같은 얼굴모습이나 자세를 한 나한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생생한 표정을 띠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영산전안에는 청화화상이 조성한 석가여래삼존불과 상언스님이 그린 영산회상도도 봉안되어 있다. 영산전안에서 5백26배를 하거나 나한상 하나하나에 3배를 모두 마치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구전돼 거조암에는 나한기도의 영험을 성취하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보수불사에는 총 1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국비보조가 3억원에 불과해 사격(寺格)이 크지 않은 거조암으로서는 불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지 혜해스님은 "소중한 국보가 이렇게까지 방치된 데 대해 당국은 관리소홀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거조암은 역사적으로나 불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지인 만큼 이번 보수에 정부와 불교계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팔공산=이윤호 기자

종단소식

초파일 봉축 독자추진

진흥회 25일까지 결정

종단진흥회(회장 일공)는 지난 5일 천태종등 11개 종단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진흥회 단독추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이자리에서 스님들은 "이번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조계종위주로 봉행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오는 25일까지 시간을 두고 진흥회의 부처님오신날 행사 개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천태종은 진흥회 별도 부처님오신날 행사 개최안에 반대해 천태종의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태고종 보현도량 총회

태고종 보현도량은 지난 4일 포천 기원정사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불교와 종단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사회봉사활동강화 등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에 무위(상불암주지) 부회장 법현(전 태고종 총무부장) 총무부장 법인(법회연구원장) 재무부장 무불(백련사 교무국장) 감사 재홍(성주암 총무)스님 등을 선출했다.

밀교문화대학 1기 입학

진각종(통리원장 락해)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총인원 대강당에서 창종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밀교문화대학 제1기 입학식을 개최한다.

방송가 소식

32억4천만원 청약

불교TV 5차 주식공모

불교TV 제5차 불자주식공모가 32억4천여만원으로 청약마감됐다.

당초 80억원을 목표로 시작됐던 이번 주식공모는 공모기간동안 주가폭락과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 경제불황 등의 악재가 겹쳐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로 마감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불교TV는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미련과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유발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불교TV 3기 주주총회

불교TV 제3기 주주총회가 오는 13일 오후 3시 잠실 향군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96년도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에 이어 정관일부 변경 및 임원선임의 건 등이 결의될 예정이다.

'경리사고 조사위' 결성

조계종 종회 사회분과위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여연)은 지난 4일 사회분과위 회의를 열고 불교방송 경리사고 재조사를 위한 '중앙종회 사회분과위 불방 공금횡령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했다.

사회분과위는 또 조사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공인회계사 2인을 전문위원으로 영입, 불교방송 대책위원회(위원장 영배)와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 그리고 조계종 문화부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여연스님은 "오는 19일까지 1차적인 조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종회이전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라면서 "투명한 진상규명을 통해 불교방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佛放사건 진상촉구

실천승가회 기자회견

실천승가회(공동대표 지선, 청화)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불교방송 경리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계종단과 종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지금은 사건을 미봉책으로 수습할 때가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불교방송 경영의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될 때 이번 사고의 진정한 수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BBS 이사회

불교방송은 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불교방송 경리사고의 수습과 대책방안을 논의한다.

불교방송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는 이날 이사회에서 지난 2월 17일부터 실시한 재감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해결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교방송 예결산 심의도 함께할 예정이다.

'열반 꿈꾸는 섬 발리'

교육방송 14일 방영

EBS교육방송은 오는 14일 사원의 천국 발리섬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열반을 꿈꾸는 섬 발리'를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것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있는 발리인들과 아름다운 발리의 자연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해발 3천미터에 위치한 베사키 힌두 사원등 발리에 산적해 있는 1천여 사원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생활이 곧 예술이자 신앙인 발리인들의 삶을 소개한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개원법회가 지난 2일 통영실내체육관에서 2천5백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2일 개원

(0557)43-0643 〈부산=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춘)은 지난 2일 통영시 실내체육관에 2천5백여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가졌다.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저마다 이미 갖추고 있는 제 뿌리를 믿고 가는 공부를 해야한다"며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어 일체만물은 하나로 통해 돌아간다"고 설법했다.

통영지원은 통영시 도천동 도심에 있으며 연건평 50평 규모다.

천태종 간부 단합대회

17일 서울~26일 제주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는 17일 오전11시 서울 성룡사를 시작으로 26일 제주 문강사까지 9개지역에서 1만여 간부들의 화합과 우의를 증진하는 정축년 9개 시·도 간부단 합법회를 개최한다. 간부단합법회는 18일 성남 화성사 19일 춘천 삼운사 20일 괴산 남룡사 21일 경주 청강사 22일 울산 정광사 24일 광주 정광사 25일 부산 삼광사 등에서 실시된다.

화제프로

BBS '옛가락 우리노래'

청취자와 함께 전통문화 '파수'



◇'옛가락 우리노래'는 전통음악 이해에 한 몫하고 있다.

"노오드을 가아앙 벼언, 보옴 버어어들~…."

지난 2월 18일 불교방송 '옛가락 우리노래(PD 한지윤)'의 목요일 '우리가락 배우기' 코너 녹음 시간. 10여명의 보살들이 이춘희씨(경기민요 준보유자)의 장구장단에 경기민요 '노들강변'을 따라부르는 스튜디오에는 벌써 봄내음이 가득하다.

매주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밤9시 5분에 방송되는 '옛가락 우리노래'는 우리 전통국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담아내는 불교방송의 장수 프로그램.

KBS, MBC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국악프로그램이 없는 방송가에서 '옛가락 우리노래'는 지금까지 남도민요, 서도민요, 경기민요 등을 청취자와 함께 배우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한지윤PD는 "국악관련 공연소식과 관소리의 명인 집중소개, 관소리 순례, 전통악기 소개 등의 알찬 내용으로 불교방송 개국이래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말로만 옛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함께 체화하는 '옛가락 우리노래'는 일반인뿐 아니라 스님까지도 즐겨듣는 전통문화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은자 기자

목탁소리

방송 70년과 BBS 7년

이 은 자 〈취재2부 기자〉

근간 불교방송에서 발생한 시끄러운 사건들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불자들이라면 지난 2일 열린 제9회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시상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몹시도 씁쓸했을 것이다.

기독교와 평화방송이 몇 개씩의 상을 수상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은 '퀴즈대장경' 단 한 프로만이 본선 후보에 올랐을 뿐이다. 특히 평화방송의 수녀진행자가 프로듀서들이 뽑은 올해의 진행자상을 받는 광경에서는 정목스님을 연상시킨 불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상(賞)을 타는 것에 연연하는 이런 마음이 자칫 상(相)에 집착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지는 몰라도 애써 만든 프로그램이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가시적인 성과를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불자들의 큰 자랑이요, 불교포교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올해는 1927년 첫 라디오방송을 시작한 우리나라 방송이 70년이 되는 해이다. 불교방송도 올 5월이면 개국 7주년이 된다.

우리나라 70년 방송사가 그러했듯이 불교방송의 지난 7년도 희망과 좌절, 발전과 위기의 과정을 두루 거쳐왔다. 그러나 최초의 부처님 방송이라는 사명감과 기쁨으로 출발했던 불교방송의 오늘 모습은 상처투성이다.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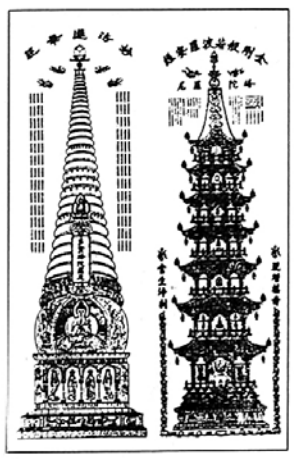
오늘날 방송매체는 국민의 정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불교방송도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그만큼 우리불자들의 불교방송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다.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방송도 시장개방 체제에 들어가 문화전쟁을 겪을 날이 머지 않았다. 불교방송이 과거의 상처와 오명을 벗어버리고 부처님 방송으로서의 확고한 내실을 다지는데 전력해야 할 때가 왔다.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나는 것일까?"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고급 백색공단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세로) 160㎝

■돌아가신 분들에게 깔아주고 덮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일체재해를 멸할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여러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것인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관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서 실제로 체험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진실로 믿거나, 사용하여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면주사를 사용하여 조성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묘법연화경 다보탑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0여 사암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 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체험 하였다고 스님들이 전해옴으로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닿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 스님용 불탑다라니 사용방법책자, 신도용 영험집 책자,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대친족연족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불띵짓는법 등이 수록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깊게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지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해가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주시고,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태아, 자연유산아, 사산아등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므로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림으로서 다소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록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학입시생을 둔 학부모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업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삼재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잘안풀리는 분
9. 고시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은 꼭 받아보십시오. 큰힘이 되실 것 입니다.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천)
부설 :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 전화주문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로번호 7626665 바라밀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밈이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그린 자비동자를 가정마다 애기동자모시기 운동을 벌여 청소년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현불뉴스

태고종 총무원장 19일 취임

태고종 제18대 총무원장 인곡스님 취임식이 오는 19일 오전11시 홍은동 백련사 무량수전에서 개최된다.

영산재보존회 어산종장스님들이 재현하여 전통진산의식으로 진행될 이번 취임법회에는 종정 보성스님 안덕암승정을 비롯한 종단원로스님과 종단산하 각급기관장 각 시도교구종무원 사암주지등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이다.

봉선사 주지에 밀운스님



봉선사는 지난 7일 경내 청풍루에서 임시교구총회 및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후보등록한 밀운스님을 4년 임기의 새주지로 추천했다.

밀운스님은 54년 대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제5~9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부원장, 봉은사 주지를 역임했다.

14교구 신도회장 류진수씨

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는 지난 3일 경내 보제루에서 교구 신도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구신도회장으로 범어사 신도회장 류진수씨를 선출했다.

류회장은 "부산불교가 하나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모범 율원스님 2명 표창

조계종 호계원(원장 고산)은 출가일을 맞아 처음으로 모범율원스님 2명에게 표창및 장학금을 전달한다. 이번 장학금수혜자로 혜능스님(대구 파계사 영산율원)이 선정돼 오는 16일 시상하며 해인사 율원에서 수학중인 스님중 한명을 선정 오는 4월초 수여할 계획이다. 이번 율원스님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은 지난해 6월 개최된 제2회 호계원 사법행정회의에서 결정되어 금년부터 매년 지급하게된다.

승가대 김포학사 20일 기공

중앙승가대 이사회(이사장 월주)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20일 김포학사 기공식을 갖기로 결의했다.

김포학사는 2년동안의 공사를 거쳐 오는 98년말 완공된다.

동국대 98년 입학전형 확정

동국대학교는 내신성적 반영율을 오해 8.36%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98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을 확정 발표했다.

동국대는 내년도 입시부터 국어군, 수학군 등 학생생활기록부의 전과목을 5개 과목군으로 분류, 이중 수험생이 선택한 2개 과목군을 절대평가로 반영하는 내신성적 반영방법을 적용키로 했다. 특차모집의 경우도 내신성적 반영비율을 10%로 상향조정했다. 논술고사는 인문사회계열 학과에 한해 실시하며, 반영비율은 총점의 5%로 결정됐다.

올 초파일봉축 이채롭다

서울 전통연등 재현 부산 아시안게임 주요행사로

조계종 봉축기획단 일정 확정

금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에서 수박등, 어등, 용등을 비롯 20여 가지의 전통봉축등을 볼 수 있게 됐다. 또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5월 10일~5월 19일)가 열리는 부산에서는 불교계와 부산시가 상호지원하는 축제로 펼쳐진다.

조계종 봉축기획단(단장 혜장·총무부장)은 지난 7일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라는 봉축표어와 함께 봉축행사 일정, 행사방향, 중점사업 등을 확정, 각 교구본사에 지침을 전달했다.

봉축기획단이 마련한 봉축행사 지침에 따르면 봉축행사는 오는 4월 25일 애기봉 OP점등식을 시작으로 서울 시청앞 점등식(5월 2일), 봉축전야제(5월 9일), 연등축제(5월 11일 동대문~조계사), 봉축법요식(5월14일 조계사) 등 20일동안 다채롭게 펼쳐진다.



◇정신대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은 3월1일 부설 정신대전시관 기공식을 가졌다. 〈사진=고영배 기자〉

봉축기획단은 또 △봉축등 다양화 △우리옷 입기운동(개량·전통한복) △외국인 참여확대 △봉축문화의 대중화 △지방봉축위 추동 △시각상징물 보급 등 10개항의 중점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봉축기획단은 금년 봉축행사를 전통등 재현과 우리옷 입기운동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년초부터 문헌과 구전으로 전해오는 어등, 거북등, 팔모등, 용등을 비롯 전통봉축등 40가지에 대해 고증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20여가지를 연등축제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성오)도 지난 2월 27일 3차 4·8 봉축행사준비모임을 갖고 기획단과 분과위원회를 결성했다. 정각스님(부불련 부회장)을 단장으로 규정, 재정, 문화예술, 부대행사분과 등 8개분과를 구성 봉축행사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봉축기획단은 봉축문화행사와 동아시아 경기대회를 상호지원하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중이다.

〈김중근 기자〉

나눔의집 '정신대 전시관' 3·1절 기공… 광복절에 완공

정신대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원장 혜진스님)은 지난 1일 3·1절에 부설 정신대전시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대동그룹(회장 곽정환)이 4억원의 건립기금을 후원한 정신대전시관은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건립될 예정이다.〈관련인터뷰 4면〉

정신대전시관은 2개동 1백평 규모로 실물크기의 위안소를 비롯하여 자료실 연구실 영상관을 설치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나눔의집 원장 혜진스님과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인제 경기도지사 박종진 광주군수 정영훈의원등 내외인사 2백여명이 참석했다.

'복제' 반대여론 확산 각국 종교·정치계등

지난달 25일 영국 과학자들이 양을 복제한데 이어 미국 과학자들이 원숭이 복제에, 대만 과학자들이 돼지 복제에 성공함에따라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과학자들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잠재적인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관련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프랑수와 도베르 프랑스 연구담당 국무장관도 지난 3일 '인간복제의 전면금지'를 촉구했다. 이어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인간복제 연구에 대해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작업을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양복제에 성공했던 영국 윌머트박사도 미국 상원에 출석해 '인간복제의 위험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운동 공동 전개

조계종, 정각회와 협조

전통사찰의 원형복구와 유지 관리를 위해 농지취득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부가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개정불가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따라 총무원은 국회정각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총무원 부장급스님들이 소관 상임위인 내무위원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농지법 개정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농림부 안덕수 농업정책실장은 지난 6일 총무원을 방문, 월주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농지법 개정불가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총무원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제6조 2항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전통사찰의 원형복구와 보존, 유지 관리를 위해 농지취득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기획실장 성광스님은 "전통사찰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민족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의의를 가진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통사찰의 원형복구와 유지 관리를 위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광스님은 또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관계없이 개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제6조 2항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농업관련 공공단체 등 공공성이 강한 경우 등 9개항의 예외조항을 두어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사찰청년법회 개설 17%뿐"

월간 '법회와 설법' 설문

청소년 및 어린이 청년포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계층 대상의 법회개설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교원(원장 성타)이 월간 〈법회와 설법〉 편집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키 위해 실시한 구독자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법회는 대부분의 사찰에서(98.1%) 봉행하고 있으나 청소년(중고등학생, 33.3%) 및 어린이(29.6%) 청년법회(16.7%)는 대상사찰의 1/3에도 못미치는 곳에서 봉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법회를 봉행하는 사찰(포교당)은 3.7%에 머물렀다.

포교원은 지난 1, 2월 〈법회와 설법〉 독자 가운데 2천8백50개 사찰을 무작위추출해 우편과 전화 설문의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사찰의 법회개설 현황을 묻는 질문은 전화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54개 사찰이 전화설문에 응했다.

응답사찰이 소수에 머물러 이같은 설문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청년층 이하의 법회현황의 일단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포교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정완석법사(청소년법보 발행인)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사찰 및 중고등학교 법회는 5백91곳으로 파악됐다.

아시아청소년불자 '한국 집결'

청교련 7월30일 제주 '국제캠프' 마련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불자들이 한국에 모인다.

(사)대한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오는 7월 30일 제주도 캠프장에서 '97 국제 청소년 캠프'를 열어 청소년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주고 이국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캠프를 마련한다.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각국의 청소년불자들이 대거참가할 예정인 이번 국제캠프는 예전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직접 텐트를 설치하고 야영생활을 하는등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마지막날에는 민박 프로그램을 실시해 제주도 특유의 문화를 소개하고 상호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한다. 특히 외국청소년들에게는 4박5일간의 제주도 일정외에 3박4일간 서울관광 일정을 첨가해 한국불교를 폭넓게 이해시킬 방침이다.

청교련은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새학기부터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쳐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캠프는 교계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최초의 국제캠프로서 각국 청소년불자들의 상호이해와 교류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보광사 망실토지 2천여평 환수

국가 상대로 승소

경기도 파주 보광사(주지 효림)가 망실토지와 관련해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 663-2 토지 2천91평을 되찾았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제21단독은 지난 2월 21일 보광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3심공판에서 국가소유로 된 2천91평에 대한 소유권이 보광사에 있음을 선고했다.

이번에 되찾은 토지는 보광사가 지난 1913년 10월 1일자로 소유한 부동산임이 확인됐다.

대불련 불교아카데미 24일 개강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가 신행혁신으로 활동방향을 선회하면서 오는 24일 불교아카데미(학장 정락스님)를 개강한다.

불교아카데미는 대학·대학원·법사과정으로 나누어 각 1년씩 연차적으로 진행된다. 강좌는 불교문화(홍무흠법사), 지구촌의 환경과 불교의 대안(유정길법사), 정보화 사회와 신문명속의 불교적 선택(송희식변호사) 등의 교리강좌와 전통수행법, 명상실수, 불교의례, 수계식등 신행도 병행해 실시된다. 불교아카데미는 정규반 통신반으로 나눠 각 1백명을 모집한다.

매주 월·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종로 대각사서 수업한다. 입학자격은 불교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청년불자면 수강가능하며 오는 24일까지 제 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02)732-0239

청소년상담실 운영 파라미타 부산지부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성오)는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 등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올해 사업계획은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지원봉사센터 개원 △수화교실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 캠페인 △수련활동 및 동아리 활동 전개 등이다.

능호스님 신장기증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에 장기 및 시신기증을 신청한 능호스님(34·부천 연홍사주지)이 지난달 27일 신부전으로 고통받던 임원규군(19)에게 신장을 기증했다.

그동안 절에 장애인시설을 갖추고 어린이장애인을 돌봐온 능호스님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부처님 법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이 나의 수행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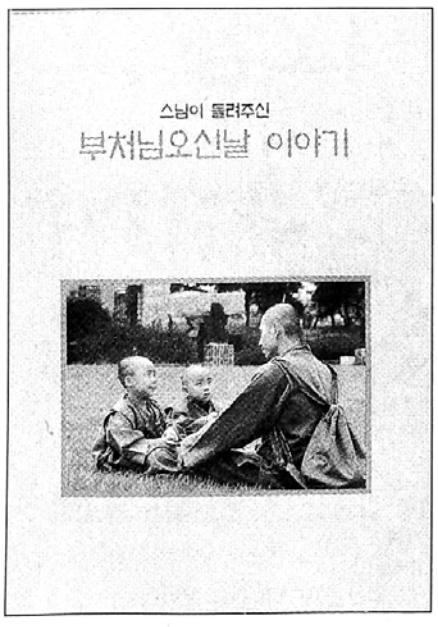
수유리 항립사 주지 도원스님의 유발상좌이기도 한 임원규군은 "장차 치과의사가 돼 스님과 같이 사회에 꼭 필요한 역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마음 모든 것을 맡겨놓고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거기서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치라고 굳게 믿었을 때, 에너지는 속사포 같이 한 찰나에 전달이 된다. 또 그런 믿음으로 주인공을 부르면 우주전체가 한꺼번에 듣는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신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 공덕, 관불의식의 유래, 봉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봉축법요의식
부처님오신날 봉축 발원문 1·2
연등공양 발원문/어린이 봉축 발원문
봉축시 1·2/팔상예문(八相禮文)

제2부 이야기 하나
흰 코끼리의 꿈/어린왕자 싯다르타의 탄생
부처님의 전생이야기/새벽 별…큰 깨침
생명의 고향 열반으로

이야기 둘
부처님오신날 등을 켠다
만개의 등, 하나의 등
온 겨레의 잔칫날, 사월 초파일/등 공양의 유래
연꽃 등 밝히며, 거리를 밝히며

이야기 셋
초파일 아기 부처님께 길상수 부으며
관불 의식의 유래

제3부 봉축법문
봉축법어 1-무우수꽃 피는 룸비니동산
봉축법어 2-하안연꽃 피어나라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맨 뒷장에 법보시자 명단을 넣어드립니다

◈ 온라인 번호 ◈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연등공양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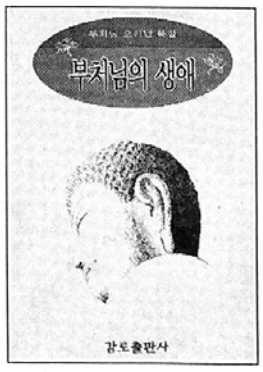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 64페이지 ■정가/1,500원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봉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감로출판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 723-4307, FAX.(02)738-8682

건강백세 ㊶

직장과 항문



직장은 막창자 또는 곧은 창자라고 한다. 이곳은 대변이 생성되어 항문을 통해서 배출되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대변대기소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문제는 배설되어야 할 대변속에는 많은 세균과 화학적으로 이롭지 못한 독소 등이 내포돼 있어 원활한 배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장에 부담을 주게되며 심한 경우에는 병변까지 안겨주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腸)에서 발생하는 병변가운데 종양(Polyp)은 작은 사마귀 모양으로 발병해 배변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가끔 터져서 하혈을 하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직장의 열을 저하시키고 국소 혈압을 낮추어서 출혈을 막고 상처를 아물게해 주는 지유(地楡)나 괴화(槐花)와 같은 약재를 써서 탁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

특히 태음인 체질인 경우 율무 등은 종양(Polyp) 자체의 발생 억제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임상보고 되고 있다. 대변을 억지로 오래 참는 것은 결코 몸에 유익하지 못하다. 화학적 독소물질이 상승되어 자가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치질이나 직장암의 원인은 대부분 오래 참는 습관과 비위생적 처리에서 온다.

배변 오래 참으면 치질·암 일으켜

항문주변 세균많아 청결히 해야

침대와 카펫트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요충(蟯蟲)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한다. 소독하지 않은 이불과 요를 계속 사용하는데서 비말감염인 요충은 계속 번져간다. 침구를 자주 햇볕에 말리고 면지를 털어 사용하는 습관을 통해 기생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문은 소화관의 마지막 관문으로 필요한것을 흡수하고 남은 찌끼와 몸안에 잔류해서는 안될 해로운 독소나 세균들이 배설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리를 해야만 귀찮고 고질적인 증상 즉 치질과 치루 등을 막을 수 있다.

인간은 서서 활동함으로 인해 항문 입구가 양쪽 볼기살에 의해 밀착되어 공기 소통이 좋지않아 열의 발산을 막고 닦아낼때나 배변시의 잘못으로 상처가 생겼을 경우 상처를 통한 감염성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과식하거나 매운 음식, 과음, 과색, 장시간 서있는 과로 등으로 장의 조직이 늘어나서 생긴다는 논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 현대 의학에서는 항문조직의 파열(破裂)에 의한 대장균 등의 침범 또는 항문주위조직의 혈액순환 부전으로 인한 일종의 울혈성치정맥류(鬱血性痔靜脈瘤)인 치핵(痔核)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치료방법도 울혈된 부분 즉 치핵을 제거하거나 과사(壞死)시켜버리기 위해 고무밴드로 치약을 묶어두거나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소작법(燒灼法) 등을 사용하고 있다.

치질환자의 예방이나 치료는 공통적으로 항문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히 해야한다. 즉 매번 배변후에는 물로 청소 해주며 대변을 억지로 참거나 장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는 등 긴장이 되는일을 절대 피해야 하고 따뜻하게 좌욕등을 함으로써 혈액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다.

치루(痔瘻)는 항문주위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속으로 깊이 화농(化膿)되어 통증이나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 환부에 천공을 한후 거즈등을 넣어 철저히 화농된 고름을 제거하며 새로운 조직의 재생에 방해되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 원기회복과 양생을 통한 조직의 강화등은 큰의미를 갖는 근본치료법중의 하나로 추천된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이몸 끌고다니는 물건 찾아 ③·〈끝〉

신행수기 공모 당선작

〈본사 사장상〉



그림 · 이준석

마음이 즐거우니 질병이 사라지고 좋은일들이 자연스레 찾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깨달음의 길은…

마음이 즐거워지자 좋은 일이 하나둘씩 내 생활로 자연스레 찾아왔다. 그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질병들이 사라져버렸다.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위장병, 전립선염은 말끔히 사라지고 백반증은 차츰 번져나가는 것이 중지되더니 없어졌다. 10여년을 괴롭혀오던 만성병이 단지 고마음을 깨닫고 마음의 상태가 바뀌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니 믿기 힘든 일이었다.

복학을 하자마자 큰 기대를 안고 대학생불교학생회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도자의 빈곤으로 대학생불교학생회는 불교서적 내용 이상의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고, 후배의 제안으로 송광사 광주포교당인 원각사 청년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때 청년회에서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하시며 불교포교에 정열을 쏟으시던 김참순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눈을 감고 사물들을 떠올리는 일종의 명상수련을 시키셨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사물이 떠오르면 손을 드는 훈련이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잘 되질 않았다. '아, 나의 정신상태가 이렇게 어두워져 있구나. 안되겠다. 방법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송광사의 수계법회에 참석해 오계를 받기로 마음 먹었다.

수계식을 하며 무언가 새로운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구산스님의 오계에 대한 법문을 듣던중 '살생하지말라'와 '거짓말하지말라'는 부분을 도저히 지킬 자신이 없었다. 연비를 찍고 계를 지키겠다고 서약하면 살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살생을 하면 그 계만 파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까지 파하게 되니 차라리 계를 지키겠다고 서약하지않는다면 살생의 과보를 짓더라도 거짓말에 대한 과보는 짓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손을 드니 뒤에 앉아계시는 스님들께서 이런데서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고 손을 들지못하게 했다.

수계법회를 마치고 점심공양을 하려는데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로 구산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삼일암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여쭈었다. 스님은 웃으시며 "해충을 안죽이려면 미리 예방하고 살아가거라. 계를 아무리 잘 지켜도 깨닫지 못하면 윤회에서 해탈할 수 없으니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스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깨달음이 나에게 멀게만 느껴졌다.

그렇게 대학에서의 생활을 마친후 나는 잠시 교직에 몸담았다. 하지만 교직생활도 나에게 별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다.

교직생활을 하면서 가게를 3년정도 운영해 돈을 좀 벌게 되자 자신만만하게 사표를 제출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몇차례의 개인 사업을 하면서 이익관계의 살벌함과 인과의 여실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능력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사람들의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불교에서 말하는 과거생과 현재와 미래사이에 연결되는 인과의 법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불교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재가자들이 수행하는 선원에 입방하였다. 선원의 규칙대로 움직이며 생활하며 다소 안정을 찾는 듯 했다. 참선을 하면서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처를 주시하면 주시하는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경계를 느끼는 듯했다. 그때는 참으로 편안했다. 그런데 눈을 뜨면 모든 사물들이 다시 존재하고 만다. 진공과 묘하게 있음(묘유)사이의 관계정립이 되지 않았다.

경계에 집착하면 모든 안정이 흔들려버렸다. 이제 공부를 어떻게 지어가야 한단 말인가? 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진공의 자리가 본체임을 깨달아 그 자리를 여의지 않는 공부를 계속 지어나가는 것이 영원한 내 삶의 화두로 남아 있다.

박 민 수
〈광주광역시 지산동 배재학원〉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㊷

♦ Those who have applied themselves studiously with a firm mind and free from desire to the commandments of Gotama, have obained the highest gain, having merged in:o immortality, and enjoying happiness after getting it for nothing.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the Assembly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마음을 굳게 다져 열심히 공부하고 부처님의 계율을 따르며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정처 죽음이 없는데 들어가 위대한 경지에 이르며, 어떤 조건도 없이 평안의 즐거움을 누린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 As a post in the front of a city gate is firm in the earth and cannot be shaken by the four winds, like that I declare the righteous man to be who, having penetrated the noble truths, sees them clearly. This excellent jewel is found in the Assembly,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마치 성문 맞은편에 서있는 기둥이 땅속 깊숙히 박혀있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정직한 사람이야 말로 고귀한 진리를 통찰할 수 있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 Those who understand the noble truths well taught by the profoundly wise, though they be greatly distracted, will not have to take the eighth birth. This execllent jewel is found in the Assembly, by this truth may there be salvation.

심오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잘 배워 거룩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리 커다란 잘못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덟번째 생존을 받지는 않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studious (a) 열심인, 신중한, 공부하기 좋아하는
*commandment (n) 계율, 지휘관
*merge into (~으로) 녹아들다, 몰입하다
*Assembly (n) 승단
*post (n) 기둥
*declare (v) 단언하다, 언명하다
*the righteous (n) 정직한 사람, 유덕한 사람
*penetrate (v) 통찰하다, 꿰뚫다
*profoundly (ad) 깊은, 심오한
*deranged (a) (주의 등이)엉나간, 산만한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

96년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1호에 이어 합본 '96년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옥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매주마다 찾아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정말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심하셨던
분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 합본집('96년판) : 제 60호(1996. 1. 3)
제108호(1996.12.25)
■ 가격 : 50,000원(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한정된 수량 관계로 선착순 판매 합니다.

(주)현대불교신문사 (代)737-8881

btn 불교텔레비전 32
(주) 위동 마린투어
크루즈급 초호화 여객선으로 찾아가는 중국 불교성지순례

신심으로 가는 깨침의 길
중국불교성지순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중국불교성지순례
불교TV와 함께 다녀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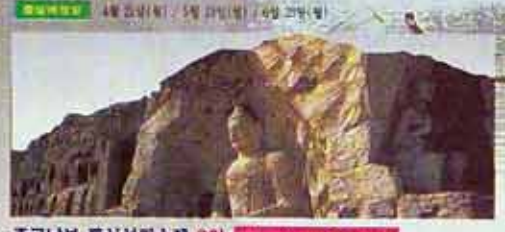
불교텔레비전과 중국 최대 현지법인 여행사인 위동마린투어가 국내 최초의 크루즈급 호화여객선으로 모시는 선상여행에는 편안한 여유로움과, 최상의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중국불교 핵심 성지순례 9일 ▶MOS 원: ₩1,150,000


▶MOS 원: ₩1,100,000


중국남부 흑선성지순례 9일 ▶MOS 원: ₩1,500,000

불교TV만이 드리는 모방할 수 없는 다양한 장점
● 획기적인 가격
● 여유있는 순례코스
● 국내최초 크루즈급 여객선의 최고 서비스
● 중국 현지 최대 여행사의 넉넉하고 편리한 일정
● 선상법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 성지순례 비디오테잎 및 성지안내서 무료제공

예약문의
불교텔레비전 사업부 ☎ (02)3270-3471~3
위 동 마 린 투 어 ☎ (02)7 1 1 -9111